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대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대 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韓, 성장률 2% 버거워 미래 성장동력 키우고 ‘규제혁신’ 효율성 절실

뉴메트로 10년 기획

전환기의 대한민국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세 이하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작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 도달조차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 저 성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신성장동력의 부재가 거론된다. 남녀 간, 중산층·서민과 부유층 간 소득격차 및 갈등을 비롯한 사회 분열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로 뿌리내렸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사회 등 주요 분야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이를 당장 해소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관련기사 3면>

‘신성장동력 부재’ 저성장이 원인
국내 인구 유소년 비중 10.5% 불과
수출 美 의존 줄이고 다변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조조정 통해 성장률 하락 막아야”

불리한 요소들에 막혀 꺾이느냐, 역경을 극복하고 재도약 하느냐의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대책에 따른 점진적 해소를 통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0~14세 인구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10.5%로 역대 최소 규모다. 거주민 10명당 유소년이 1명 남짓이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인 2015년 7월(13.9%)과 비교해 3.4% 포인트(p)나 줄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OECD에서 관련 비중이 가장 낮다. 지난 2022년 기준 11.5%로 내려앉으며 일본(11.6%)에도 밀려 ‘아이들이 가장 적은 회원국’이 됐다. OECD가 그 이후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행안부 수치만 봐도 최근까지 3년간

1%p나 더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다. OECD가 함께 제시한 52개국(비회원국 포함)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아이들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한국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투명·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더해 미국발 상호관세라는 직격탄까지 맞았다. ‘우방’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끄는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차전지와 가전제품, IT(정보통신)제품 등도 수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수출 시 타국에 비해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이에 수출대상지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더욱 커졌다. 동남아와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등이 대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특정 국가 교역 규모·비중의 변동은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에서 “AI(인공지능)·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곳곳에 존재한다. 서울과 그 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차이는 불과 10년 전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방 아파트엔 신축에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OECD에서 수십년째 가장 크다. 갈등은 비단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계급·탄핵을 거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사회 반목이 도처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전공의 오늘부터 현장복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상당수가 9월 1일부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3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등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격자를 통보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군 미필의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외의 경우 70~80%가 복귀할 전망이다.

/뉴시스

조선·원전 한미협력 강화… ‘뉴삼성’ 탄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귀국 젠슨 황 등 고객사와 AI 사업 논의 삼성重·물산 등도 美 기업과 협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등의 미국 활동을 마치고 약 일주일 만인 31일 귀국했다.

출장 기간 이 회장은 조선과 원전 사업 등에서 한미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한편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사와 인공지능(AI) 사업 협력을 다졌다. 이 회장은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털어내고 위기에 처한 삼성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법 모색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의 자국산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만 답했다. 또 이번 출장 기간 중 제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의 만남과 내년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일 열심히 할게요”라고 답했다.

31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



이 회장은 지난 7월 29일 미국으로 떠나 8월 15일 귀국하는 등, 8월 한 달 동안 20일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교류하고 사업을 구상했다. 8월 15일 귀국 당시, 출장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내년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짧게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출장에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동행해 조선과 원전 분야에서 한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제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핵심 고객사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마다 새로운 비전을 완성해온 만큼 이번 출장 기간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선보였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저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

)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에너지 개발사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 텍사스주의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회장이 제슨 황 CEO와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후 경영 보복을 넓히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미국 출장기간 중에는 애플과의 반가운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애플은 지난 8월 6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칩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계는 이 제품이 이미지센서(CIS)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칩 위탁 공급 계약도 맺었다.

/양성운 기자 ysw@

美, 삼성·SK 中 공장 장비공급 제한… 생산위축 우려

반도체 장비 공급 건별 허가 받아야
절차 시간소요 등 장비공급 지연 우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장 내 장비 반입 과정에서 허가 절차가 지연될 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

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2일 관보에 정식 게시되고 이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그동안 두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장비 반입 허가’를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

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렌 낸드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건마다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더라도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제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 ▲ 대통령실 “이배용, 휴가라고 국회 출석·답변 의무 면제 안 돼” /사진 뉴시스
- ▲ 조국혁신당 “정기국회서 내란 청산·검찰·정치 개혁 강력 추진”

- ▲ 국힘 “민노총·전교조 내세운 李 ‘한쪽만 쓰면 위험’은 허언…최고진 사퇴하라”
- ▲ 민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특허 의혹”…서울시 “위법 사항 없다”

- ▲ 산재예방에 ‘4.5일제’ 지원…내년 고용부 예산 37조 ‘역대 최대’
- ▲ 與 특검 특위 “특검법 개정 신속 추진…내란특별재판부는 당 지도부 검토”

조현범의 ‘공간철학’… 미래 모빌리티 주도 기업혁신 이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공간 해석’

개방적 업무공간, 생각 방식 바뀌
2014년 ‘한국테크노돔’ 첫 신호탄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 등 갖춰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과 같이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크다. 이는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성원이 어느 공간에 머무는지에 따라 조직문화, 창의성, 소통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엔컴퍼니그룹이 ‘공간’을 가장 잘 해석하고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엔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은 ‘개방적인 업무 공간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기업문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더한 첨단 인프라를 통해 하이테크 혁신과 기업문화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31일 한국엔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R&D 역량 강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 건설을 시작으로 미래 기술 혁신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테크노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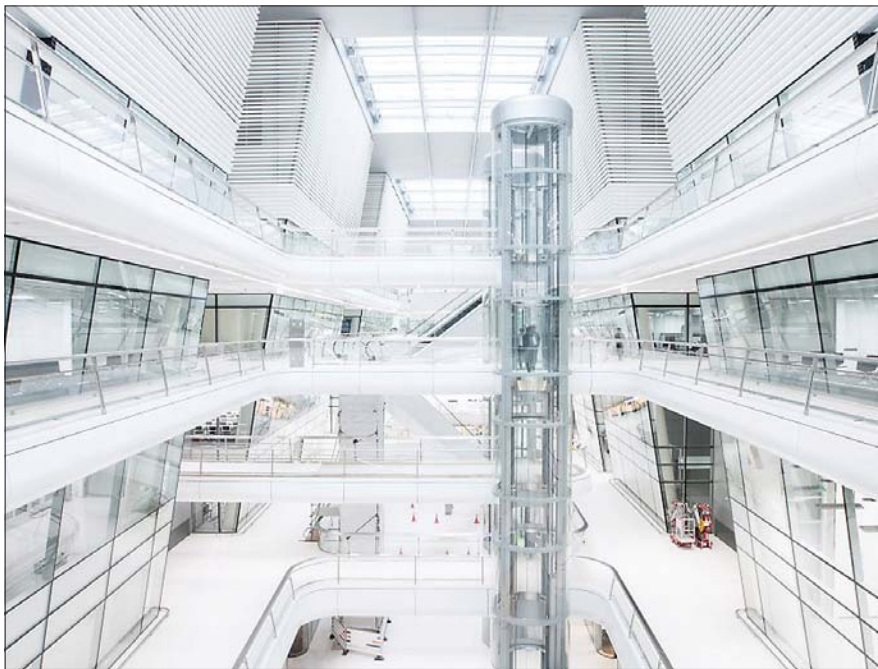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

시각 연결성 콘셉트 ‘테크노플렉스’ ‘프로액티브 컬처’ 발현하게 설계
한국테크노링, 축구장 125개 크기
250km 슈퍼카 타이어 성능테스트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설립한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Partners)’로부터 설계를 받은 국내 첫 건축물이다.

조현범 회장은 한국테크노돔 건설과 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스터 앤 파트너스 관계자들에게 건물의 콘셉트를 비롯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테크노돔’은 실제 환경에서의 가상 테스트 주행을 진행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테크노돔 내부 전경.

타이어 소음 테스트 실험실 등 최첨단 연구 시설을 기반으로 친환경 신소재 및 원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엔 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공간에 대한 조현범 회장의 지론은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에서 더욱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2020년 완공된 ‘테크노플렉스’는 노먼 포스터와 함께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미래 비전 구상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담당

하는 글로벌 컨트롤 타워이다. ‘시각적 연결성’을 콘셉트로 개방적인 업무 공간을 조성해 구성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 혁신 주체가 되는 고유 기업문화 ‘프로액티브 컬처’를 발현하도록 설계했다.

‘테크노플렉스’는 거대한 아트트리움(Atrium)을 중심으로 층별 개방성을 극대화하여 자율적 소통과 협업,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업무 공간은 사원으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자유로

운 보고 체계를 갖추는 등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유연하게 일하는 업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또 본사 내부 곳곳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구성원 스스로 수평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테크놀로지 혁신의 밑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테크노플렉스’가 전략을 ‘한국테크노돔’이 기술 혁신을 그려낸다면 이를 실험하고 증명하는 곳은 바로 지난 2022년 완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Hankook Technoring)’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에 들어선 한국테크노링은 최고 속도 시속 250km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와 같이 혁신적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의 공간론(論)을 바탕으로 완성된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해 나갈 원천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수평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프로액티브 컬처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순차입금 ‘제로’… 업계최고 운영역량 확보”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

“무엇보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 중요
AI 활용, 보유사업 프로세스혁신”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과 직접 만나 회사의 경영 현황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소통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과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31일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구성원이 묻고, 리더가 답하다’ 행사에서 구성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이천포럼 CEO 스피치 세션에서 쏟아진 관심과 추가 질문에 화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순차입금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을 갖추겠다”며 “보유 중인 사업 영역에서 흔들림 없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차입금은 기업의 총 차입금에서 현금 및 예금 등을 뺀 수치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또한 그는 AI를 적극 활용해 기존 사업 모델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SK그룹이 최근 강조해온 ‘일하는 방식의 AI 전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방향성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제도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없다”며 “구성원 모두가 회사를 믿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왼쪽부터 류두형 (주)한화·글로벌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엔진 대표이사, 라피 발타 한화파워시스템 대표이사, 최석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리조트 부문 대표이사, 김경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대표이사 내정자.

/한화그룹

(주)한화·글로벌 대표이사에 류두형 내정

한화그룹, 4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엔진-김종서, 파워시스템-라피 발타

한화그룹은 (주)한화·글로벌,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리조트부문·에스테이트부문) 등 4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한화·글로벌 신임 대표이사에는 류두형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한화에너지, 한화첨단소재, 한화모멘텀 등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전문경영인으로, 제조·에너지 분야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화·글로벌의 사업 전략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엔진은 김종서 전 한화토탈 대표가 맡는다. 김 내정자는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을 맡아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과 액화천연가스(LNG) 선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끈 바 있다. 글로벌 선박 수요 확대에 맞춰 엔진 제조 본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다각화를 주도할 책임자로 평가된다.

한화파워시스템 대표이사에는 라피

발타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선임될 예정이다. 그는 글로벌 엔진 및 가스터빈 업계에서 3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로 GE와 항공우주 제조업체 프리시즌 캐스트파트즈(Precision Castparts)를 거쳐 지난해 한화파워시스템에 합류했다. 풍부한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파워시스템의 압축기, 가스터빈 등 에너지 장비의 해외시장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리조트 부문은 최석진 대표이사가, 에스테이트 부문은 김경수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최 대표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레저지원그룹장과 미래전략실장을 지냈다. 호텔·리조트 사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발사업부장과 회원사업부장, 아쿠아플라넷 대표를 거쳐 현재 에스테이트부문을 맡고 있다. 종합 부동산 시설관리 사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태양광 사업부지 사전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 위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826번지
- 발전소 명칭

발전소명	사업주명
직천1호	최선미

- 발전소 면적: 2,350㎡
- 발전소 내용:
 - 설비용량: 307.34kw*1개소
 - 사업개시예정일: 25년 11월
 - 사업운영기간: 2025년 11월 ~ 2045년 10월 (예정)
-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최선미
- 의견서 제출기한: 2025년 8월 30일 ~ 2025년 9월 12일
- 의견서 제출방법: 전화 063-255-2581, 팩스 063-251-2581
- e-mail: ok1300@daum.net

사라진 아이들… 불꺼진 도시… 기업역할 더 중요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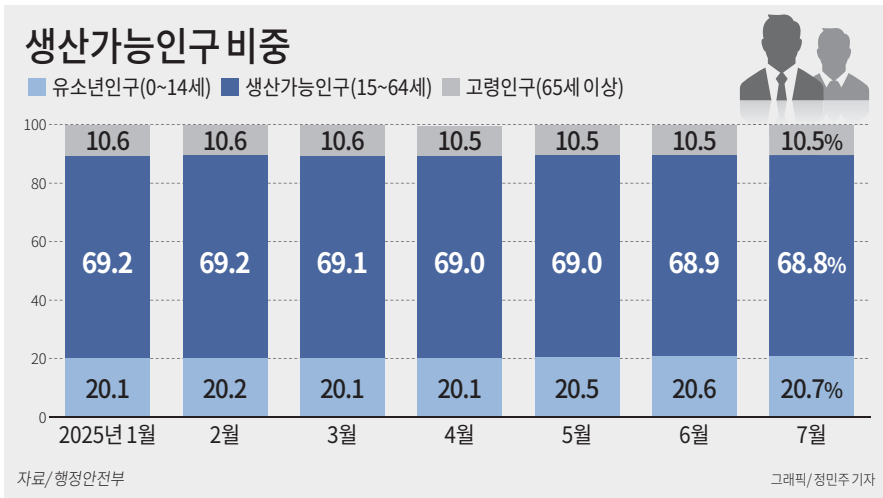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비중 36년새 최저
주요도시 공실 증가… 성장 ‘적신호’
“새로운 활력을 쏴아부어야 할 때”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인구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대 초중반 정점(총인구의 73.4%)을 찍고 내리막을 내닫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 등이 향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부분 중 하나다.

다른 주요국 다수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을 겪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68.8%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의 69.6%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낮다.

OECD와 행안부가 보유한 통계를 종합하면, 국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은 1989년(68.6%) 이래로 36년 사이 최소 수준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을 20·30대 청년층이 상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14세 이하 유소년 수의 급감 탓이다.

OECD가 2022년도 집계로 비교한 주요 52개국(회원국+비회원국) 비교에서 한국보다 유소년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한국의 14세 이하 인구가



11.5%인 반면, 남아공은 28.1%, 이스라엘은 27.8%, 인도는 25.3%, 멕시코는 25.1%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24.5%)와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도 20%를 웃돌았다. 15% 선을 넘은 국가는 미국(17.8%)과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 연합(EU)이 15.0%로 나타났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유엔(UN)은 한국을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2.1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0.1%에 그친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달 초 ‘2025 인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국가 성장으로 연결될 리 만무하다. 지방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메트로신문이 가 본 경남의 한 군 지역은 15년쯤 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있었다. 2008년 유동인구가 꽤 많았던 읍내는 주말임에도 매우 한산했고, 타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오던 유명 공원에서 왁자지껄 뛰놀던 아이들 모습

은 찾을 수 없었다. 동네 할머니들만이 모여 노래대회를 하고 있었다. 가장 젊게 보이는 분들도 최소 70대 초반은 돼 보였다. 이 지역 인구는 15년 만에 5000명(12.5%) 넘게 줄었다.

대전과 대구 등의 광역시에서도 이른 저녁부터 불 꺼진 상점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세종에도 상가 공실이 늘어만 간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살아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인구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환경을 둘러싼 국제 질서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대중 교역을 병행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발 상호관세가 전 세계 상품에 매겨졌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여가격경쟁력 효과를 톡톡히 보던 기업들이 일본 및 유럽 기업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세 곳 모두 미국 수출 시 관세 15%를 부담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로 통상불확실성은 완화했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

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대미국 수출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내부 갈등도 성장에는 저해 요소다. 새 정부가 사회분문 격차 해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간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한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여자는 중위임금 기준으로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손놓고 바라볼 수 없다. 새로운 활력을 쏴아부어야 할 때다. 새 정부의 방향 설정이 기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들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美, 삼성·SK 中 공장’서 계속

NXT, 일평균 7.2조 거래… 주식시장 안착

6개월만에 800개 종목 거래
일각선 ‘15%룰’ 개정 지적도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반 년만에 한국거래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당초 3년 내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은 ‘15%룰(NXT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1억 8125만주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량(13억3052만주)의 13.6% 수준이었다.

특히 8월 성장세는 가팔랐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2392억원으로 한국거래소(15조4263억원)의 절반(46.9%)에 육박했고,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에서는 31.9%를 차지했다.

출범 첫 달 주식시장 거래대금 점유율이 3.8%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의 성장이다. 3월 초 출범 당시 상장종목은 10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0개 가까운 종목이 매매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개설, 기존까지 6시간 30분이었던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8%와 30.6%에 이른다.

시장 한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직후 발생했던 일부 증권사의 전산오류 등 초기 진통을 이겨내고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개된 2분기 영업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전제로는 14억원 순손실이 났지만, 순손실이 71억원에 이른 1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15%룰’ 규정 준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일부 종목들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룰이란 대체거래소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말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자 대체거래소도 입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성장이 전체 돼야만 대체거래소도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점유율 도달이 오히려 시장 존립과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KRX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므로, 시장 경쟁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거래 환경의 다원화를 반영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에 대한 질적 평가, 유동성 분산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가계대출 지속 증가… 정부, 추가 규제 나서나

6·27 대책에도 서울 중심 집값 상승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8월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 정부의 또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

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762조 1971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2237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월 3조900억원 ▲3월 1조8000억원 ▲4월 4조5300억원 ▲5월 5조원 ▲6월 6조7500억원 ▲7월 4조 1400억원을 기록했다.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값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며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450만원으로 1.57% 상승했다. 특히 강남 동남권은 6월 21억4362만원에서 7월 21억8483만원으로 1.92% 올랐다. 주변인 성동·마포·동작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부터 수도권의 집값도 올랐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2220만원에서 7억2955만원으로 1.0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기간을

둔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규제는 9월 30일 종료한다. 이전에 강력한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낮춘다. 처음에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차현정 기자 hyeon@

3년새 50% 뚝 산업용 전기료… 기업 부담에 ‘脫한국’ 우려

주택용 요금 추월, 산업계 역차별
美·中보다 비싼 전기료 경쟁력 흔들
반도체 등 전력집약 업종 수조 부담
‘탈한국’ 압박, 요금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 사이 50%나 급등해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 등 주요국보다도 월등히 비싼 전력비용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등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18년 kWh당 106원을 시작으로 2022년 119원, 2023년 154원, 2024년 168원을 거쳐 2025년 상반기 179.23원이었다. 최근 7년 사이 약 70% 오른 것이며 특히 2년여전부터 급격한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2018년 107원을 시작으로 2022년 121원, 2023년 150원, 2024년 157원에 이어 2025년 상반기 155.22원을 기록하며 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뉴시스

근에는 보험세를 보였다.

이러한 인상률의 차이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앞서게 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

보다 낮은 가격대를 유지해 왔으나, 2023년 반전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그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소극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대치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역차별로 이어

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만의 과도한 증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여지를 키워 ‘오프쇼어링(기업의 서비스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21.5원/kWh, 중국은 129.4원/kWh 수준으로, 국내보다 저렴한 축에 속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력 사용량은 2021년 1만921기가와트시(GWh)에서 2023년 1만2011GWh로,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1만9132GWh에서 2023년 2만3217GWh로 각각 약 10%, 20%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시 SK하이닉스는 약 7000억원대의, 삼성전자는 약 1조6000억원대의 전기요금이 추가됐다.

반면 지난해 기준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인 121.5원/kWh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시 SK하이닉스는 약 3000억원, 삼성전자는 약 800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

이 도출된다. 이는 국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비용감축-이윤 확대에 매달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더 나은 조건의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클린룸(항온·항습 유지), 웨이퍼 가공 장비, 냉각 시스템 등에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전력 집약적 산업이다. 일부 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PA)이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자체 설비 도입을 검토 중이나, 대규모 반도체 팹의 경우 결국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망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국내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기술 생태계 유지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폭증하는 HVDC 해저케이블… LS·대한전선, 설비확충·턴키 ‘승부’

슈퍼그리드·풍력 특수에 수요 폭증
글로벌 빅4도 못 버티는 공급 병목
韓 전선업, 공장·선박·턴키 총동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연결 수요가 맞물리며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전선업계 양대 축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거점 투자와 설비 확충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시장은 지난 2022년 약 6조원에서 오는 2029년에는 28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HVDC 해저케이블 시장은 슈퍼그리드(Supergrid, 국가간 전력망 연결) 및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확대에 따라 가파른 성



대한전선이 싱가포르에서 400kV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전선

장세를 보이고 있다.

HVDC는 장거리 전송에서도 손실이 극히 낮아 해상 풍력 단지와 내륙 전력

망을 연결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로 꼽힌다.

영국과 덴마크를 잇는 ‘바이킹 링크(Viking Link)’, 노르웨이와 영국을 연결하는 ‘노스시 링크(North Sea Link)’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모로코와 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3800km 규모의 ‘Xlinks 프로젝트’, 영국과 독일을 잇는 ‘NeuConnect’ 등 차세대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되며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빅4’로 불리는 프리즈미안(Prysmian), 넥상스(Nexans), NKT, LS전선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생산능력으로는 쏟아지는 신규 프로젝트를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급 병목을 기회로 삼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공격적인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LS전선은 강원 동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 해저케이블 공장을 준공했고 미국 버지니아주에도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다. 설치 역량 강화를 위해 1만3000톤급 초대형 설치 선박을 발주해 오는 2028년부터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수주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주도하는 부산·후쿠오카 해저 통신망(JAKO 프로젝트)을 따냈고, 코펜하겐인프라파트너스(CIP)의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급 우선계약도 확보했다.

대한전선 역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남 당진에 3억6000만 달러

를 투자해 HVDC 전용 공장을 신설 중이며 오는 202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해저 설치 전문기업 오션씨앤아이(OceanC&I)를 인수해 ‘설계·제조·설치·유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괄 공급 체제를 완성했다. 글로벌 발주처의 턴키(일괄수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전선업체들이 HVDC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며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VDC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불확실성’ 겹겹이… 국제 금값 3500달러 돌파

금 선물 3516달러, 3주만에 최고가
트럼프 연준 압박에 금리인하 전망 ↑
우크라 전쟁 격화 안전자산 수요 급증

금(金) 가격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미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확산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금 수요를 자극했다.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9일

(현지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16.10달러(약 489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41.80달러 오른 수준으로, 지난 8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3주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은 지난 3월 최초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약 5개월 만에 500달러 넘게 재상승한 모습이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금리가 하락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값이 오른다.

트럼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리사

국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연준 이사가 해임된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최초다. 미 연방법은 대통령이 연준을 포함한 독립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국 이사는 즉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갈등은 헌법적 논쟁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 이사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 이사의 해임이 인정되고 후임자가 부임하면 연준 이사회 위원 7명 중 4명이 친(親)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중인 만큼,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인플레이션율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7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연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지만,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만큼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속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러시아군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

다. 지난 15일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을 논의한 지 약 2주 만이다. 같은 시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안한 ‘완충지대 방안’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요구한 종전 합의 시한은 9월 1일로, 미국과 나토는 휴전 협상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협상을 주도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도 당사자들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전쟁이 이어지는 한 살상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메시지를 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광화문 KT WEST 사옥

140년 전, 대한민국 통신이 시작된
광화문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WEST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정권교체後 첫 정기국회… 與野 民生·경제 입법 신경전 예고

사회부총리·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삼특검 연장법안 처리 등 갈등 전망
與, 오는 25일 검찰개혁 처리 예정
올해 224건 법안 중점 추진 계획도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국가 성장의 동력의 살리는 여야의 경쟁이 기대된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인 정기국회 포문을 열고 내달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정권교체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고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리는 데 이어,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연장하는 특검 연장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 연장법안을 강행하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랴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윤(진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관심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법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월25일에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회에서 결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7대 분야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AI 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업(CDMO) 규제지원 법적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심융합특구 기업이전 세제지원법)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우원식, 中 전승절 참석… 南北관계 전환계기 될까

오는 3일 베이징서 전승절 80주년 행사
김정은 총비서 조우 가능성에 대비
동선 예측불허로 만남 여부 불투명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남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만일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9월2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이튿날인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불참하고 우 의장이 사절단을 구성해 참석하게 됐다. 사절단에는 국회 한 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행한다. 국민의힘 측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으나, 김정은 총비서의 방중 소식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나흘간이나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김 총비서 입장에서 6년8개월여만에 중국을 찾는 것이며, 첫 다자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면, 2018년 이후 두 번째 조우다. 우 의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 총비서와 잠시 대화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대신 입법부 수장으로서 우 의장이 중국에 방문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김 총비서에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진 않았다. 그러나 우 의장과 김 총비서의 조우를 통해 APEC 초청, 북미 정상회담 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도 혹시나 모를 두 사람

의 조우에 대비해, 우 의장 측에 도움을 주는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총비서)이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회의장께 필요한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전승절 당일 우 의장과 김 총비서가 만나게 된다면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열병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천안문 망루다. 10년 전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망루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김 총비서와 푸틴 대

통령 외에 르엉 끄엥 베트남 국가주석,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이에 초청된 정상들은 시 주석과 함께 망루제 일 앞줄에서 열병식을 관람한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망루에 오르더라도 김 총비서와 가까이 서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우 의장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박지원 의원은 “김 위원장(총비서)의 동선이 예측불허로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회는 행사 직후 시 주석이 주재하는 리셉션이다. 리셉션은 행사에 비해 비교적 동선이 자유롭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혹시 리셉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도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李 대통령에 ‘단독 회동’ 요청… 주도권 선점 시도

李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공식 제안
장동혁, 조건 내걸수록 여론전 불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건 데 대해, 정치권에선 주도권 선점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 복원’이 필요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조건을 내걸수록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전

망도 있다.

3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해당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히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했지만, 장 대표의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1야당 대표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 회동 자리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이며, 이 자리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강경 대여(對與)투쟁을 기조로 내세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성과를 ‘듣기만’ 하고 올 경우 당내 극우 지지층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 대표의 단독 회동 제안은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사용되던 ‘영수회담’이

라는 용어를 꺼내는 것 역시 이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야의 초강경파 대표가 서로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 이 대통령이 회동을 성사시킨다면, ‘정치 복원’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장 대표가 단독 회담이나 의제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이 늘어날수록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음에도, 야당 대표가 피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어쩌면 우리의 기술은
모빌리티의 일부.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미래 모빌리티의 전부를 뒤바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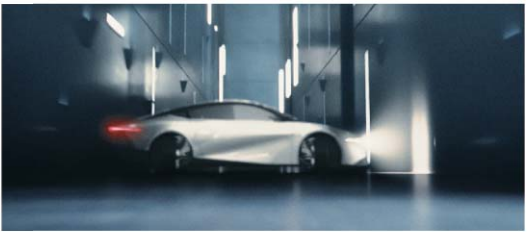
이동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자율주행 솔루션 |



시각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 IVI 솔루션 |



에너지 솔루션의 전부를 바꾸는
| 차세대 전동화 시스템 |



익숙한 움직임의 전부를 바꾸는
| E-코너 시스템 |

상해·질병까지 신탁범위 확대… 약관대출 규제 완화해야

‘보험금청구권신탁’ 유연화 과제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 도입
유족 생활안정, 신탁 전문성 향상

관리형 신탁 ‘신탁자문사’ 도입을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규정 필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개선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거액을 받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전문 수탁자가 사후 보험금을 보관·관리하고 유족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틀이 핵심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운용·관리하게 하고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상속인(수익자)에게 주는 신탁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상속·자산관리 수요 확대 속에서 보험금청

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탁의 유연성을 살리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보호와 활용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자산관리 취약 계층 유족을 염두에 두고 신뢰 가능한 수탁자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운용이 없는 ‘관리형 신탁’이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최소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하다는 규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

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개선으로 유족 생활 안정과 신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최소 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까지 신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제도는 대출이 존재하면 아예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상환 후에도 무효가 되는 등 계약자 권리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는 등 사전에 정한 한도내 대출을 허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

로 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권유 자격은 ‘투자성 신탁’ 전제를 벗어나 관리형 신탁에는 보험 설계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투자성 신탁 전담을 위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과 간소화된 교육·시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불공정영업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과 신탁 권유의 결합으로 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가 강제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광은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KB국민카드는 오는 11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소상공인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혜택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KB전통시장 온누리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을 KB Pay로 결제하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5% 캐시백을 11월 말까지 매월 제공한다.

비씨카드

소상공인 매출증대 위해 로컬 브랜드 이용 할인

비씨카드는 내수 경기 회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 이용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이태그를 등록한 고객이 8개 로컬브랜드 상권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상권별 인당 7000원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최대 5만 6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마이태그는 사용자가 원하는 할인 또는 이벤트를 페이스북에서 미리 신청하면, 해당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할인 또는 적립 등을 제공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

자립청년 사회정착 지원 5일 온라인 금융콘서트

신한카드가 9월 5일 ‘아름인 금융아카데미’ 일환으로 ‘2025 온라인 금융 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 아름답인 금융아카데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올바른 경제 지식과 금융 역량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금융 콘서트에서는 유튜브 브 금융투자 전문 채널 ‘박곰희TV’의 박동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내 인생을 바꿔줄 4개의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도적인 비용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참여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온라인 금융 콘서트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을 비롯해, 서울시와 협력해 모집한 20대 청년층과 ‘아름인도서관’이 설치된 군부대 장병들까지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금융그룹, ‘내집 연금’ 등 대학생 아이디어 호응

19기 49명 스마트 홍보대사 해단식
베트남 ‘하나 해피 클래스’ 봉사 참여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해단식을 가졌다.

31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이번 19기까지 누적 106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수료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하며 금융권을 선도하는 대표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로 선발된 49명의 대학생들은 2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및 체험 ▲그룹 스포츠단 연계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그룹 봉사활동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등 다방면의 활동 미션을 통해 그룹과 청년세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톡톡 튀는 대학



스마트 홍보대사들이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 투꾸엥 초등학교(Tu Cuong Primary School)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 봉사를 통해 글로벌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생만의 시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해외 주식 전용 통장, 트래블로그 카드, 내집 연금’ 등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하나더넥스트, 하나더이지, 하나더소호’ 등 그룹 브랜드 홍보, 금융 AI 활용방안,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사업 기획안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ESG·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그룹의 미션 실천과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19기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베트남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 봉사활동에 전원 참여해 낙후된 취약지역 학교 아동들을 위해

글로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하나금융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패기로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 활동을 성료했다”며 “스마트 홍보대사의 활동은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9월 첫주, 전국 8개 단지서 937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9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8개 단지 총 9377가구(일반분양 583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용인시 고림동 ‘용인고진역대광로제비방’,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 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2곳이 개

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춘천레이크시티2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 규모다. 경춘선 춘천역·남춘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예정)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두산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에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우리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GPT 넘어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

우리은행은 인공지능 전환(AI)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생성형 AI 플랫폼(Generative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공개한 ‘Generative AI 플랫폼’은 내부 전용망의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자원 확장의 유연성을 지닌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로 설계됐다. GPT와 같은 상용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AI 모델까지 폭넓게 활용하

는 개방형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Gen-AI 플랫폼’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올 4분기 중으로 ▲주택청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청약 상담원 ▲창의적 이미지 생성 서비스 W-Sketch ▲로보어드바이저의 생성형 AI 적용 확대 등 혁신적인 대고객 및 대직원 서비스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사적 AI 대전환 추진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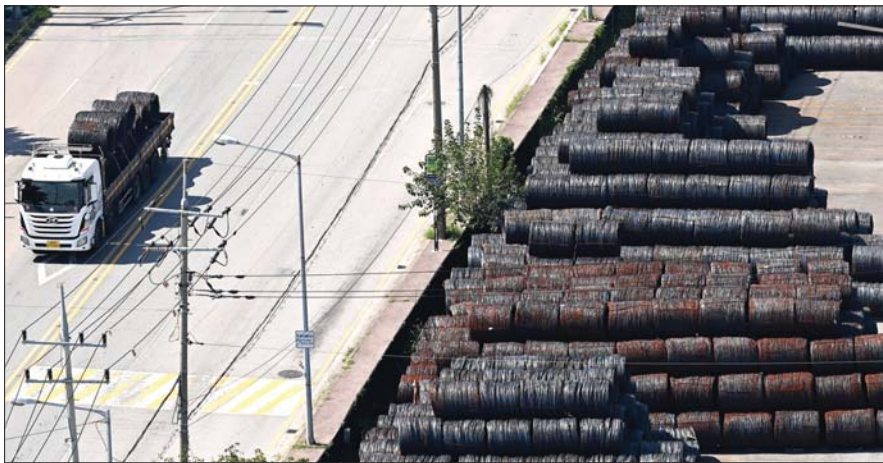
/안승진 기자 asj1231@

철강업계, ‘고율관세·수요부진’ 악전고투… “정부 지원 절실”

해외 공장 확보 등 대응책 마련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 봉착
“정부 차원 종합전략 마련 시급”

한·미 정상회담에도 대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유지되자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현지화, 해외 투자, 자산 매각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한 데다 중국의 생산량 조정이나 국내 건설경기 회복 같은 수요 요인이 반겨주지 않는 한 업황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편 불필요한 자산



지난달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뉴시스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합작 투자하며 북미 시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고성장 지역인 인도에서는 현지 1위 JSW그룹과 손잡고 연산 6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호주에서는 블루스코프·일

본제철·JSW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와일라 제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와일라 제철소는 연간 120만 톤의 봉형강 생산능력과 자철광 광산을 보유해 원재료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내년까지 저수익 사업 55개와 비핵심 자산 71개 등 총

126개를 매각해 약 2조1000억원을 확보, 철강·이차전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기로 하고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주설비 입찰을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곧 선정할 방침이다. 자동차용 강판 고객 다변화에도 나서 지난해 생산량의 20%를 그룹 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했으며, 올해 한국GM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사업구조재편 차원에서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진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세아제강 역시 북미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세아스틸USA의 상반기 가동률은 60%로, 지난해(53%)와 2023년(52%) 대비 꾸준히 상승했다.

이처럼 국내 철강사들은 해외 거점

확충과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업황 회복은 수요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전환 과제가 더해지면서 단기적 위기 대응과 산업의 중장기적 구조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대응, 장기적으로는 대외 환경 악화에 대비해 자산 매각과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수요 회복 없이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입 물량이 여전히 많아 국내 시장 방어가 필요하고,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K-배터리, 차세대 ESS 신제품 공개… 북미 공략 속도

RE+ 2025

LG엔솔 원스톱 ESS 솔루션 제안
삼성SDI ‘SBB 1.7·SBB 2.0’ 공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제품을 공개하며 북미 공략에 속도를 낸다.

3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Renewable Energy Plus) 2025’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해 현지 맞춤형 ESS 솔루션과 혁신 기술을 집중 선보일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스톱 에너지 저장장치(ESS) 솔루션’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꾸리고, ‘전력망 ESS’, ‘북미 사업역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



LG에너지솔루션 ‘RE+ 2025’ 전시 부스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

C)·무정전전원장치(UPS)’, ‘주택용 ESS’ 등을 중점 소개한다.

특히 전력망 ESS 공간에서는 ‘JF2 AC·DC LINK 시스템’ 실물을 전시한다. 고효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최대 5.1MWh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출력 타입(AC·DC) 선택이 가능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북미에서 생산되는 각형 폼팩터(form factor) 기반 LFP 배터리 셀을 처음 공개하고, 500Wh 이상 초고에너지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JF2·JF3 셀·팩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파우치형과 각형 두 가지 폼팩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올 아메리칸, 프루본



삼성SDI ‘RE+ 2025’ 전시장 조감도.

/삼성SDI

& 레디(All-American, Proven & Ready)’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미국 맞춤형 ESS 솔루션을 집중 선보인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세 정책 등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의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핵심 공개 제품은 차세대 전력용 ES

S 솔루션 삼성배터리박스(SBB) 신제품 ‘SBB 1.7’과 ‘SBB 2.0’이다. SBB는 20피트(ft) 컨테이너 박스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일체형으로 탑재해 전력망에 바로 연결 가능한 제품이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SBB 1.7은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약 17% 개선했고, SBB 2.0은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명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제품에는 모두 함침식 소화 기술인 모듈 내장형 직분사(EDI)가 적용돼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외에도 삼성SDI는 지난 5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무정전 전원장치(UPS) 신제품, 열전과 차단 안정성 기술 등 ESS 관련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 맞춤형 ESS용 배터리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며 “고성능과 고효율을 겸비한 ESS용 배터리로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화비전, 첨단 AI 영상 솔루션 뽐내

호주 ‘보안전시회&컨퍼런스’ 참가
AI 시스템온칩 ‘와이즈넷9’ 공개

한화비전이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셋 기반 영상 감시 솔루션을 앞세워 오세아니아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비전은 지난달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한 ‘보안 전시회 & 컨퍼런스(Security Exhibition & Conference)’에 참가해 다양한 인공지능(AI) 영상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보안 전시회&컨퍼런스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 보안 행사로 한화비전은 주력 신기술인 AI 시스템온칩(SoC) ‘와이즈넷9’을 공개했다.

와이즈넷9은 두 개의 신경망처리장치

(NPU)가 화질 개선과 영상 분석을 각각 담당해 이전 세대 ‘와이즈넷7’ 대비 3배 이상 향상된 추론 성능을 구현한다. 이를 탑재한 카메라는 명암 대비가 극명하거나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한화비전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부스 내에 암실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AI 기반 저조도·역광 보정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비전은 AI로 분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도 선보였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플랫폼 ‘사이트마인드(SightMind)’는 고객 이동 패턴을 분석해 통제로 시각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큰 주목을 받았다.

/원관희 기자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신임 대표 부임

르노그룹 전동화 등 핵심업무 수행

르노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 니콜라 파리 사장(사진)이 부임한다.

31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니콜라 파리 신임 사장은 전기공학으로 전문기술 학사를 취득한 뒤 프랑스 랭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ZF Lenksysteme)를 거쳐 2015년 르노 그룹에 합류했다.

파리 신임 사장은 르노 그룹의 해외 시장 신차 개발, 새시 및 플랫폼, 전동화, 첨단 기술 등 구매 관련 핵심 업무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랩에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구매 담당장을 역임하며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분야 첨



단 기술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파리 사장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배터리, E-파워트레인, ADAS,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구매 담당 부사장을 맡아 르노 그룹의 기술 혁신 및 전기차 전환에 기여해 왔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풍부한 파트너십 경력, 인도와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 신임 사장이 회사의 미래 친환경 신차 개발 로드맵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에너지빌리티 APEC 참가국 주요인사 연이어 창원 본사 방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너지 정책 당국자들이 자사 원자력 제작역량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부 토미 조이스 차관보를 비롯한 일행이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를 방문했다.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일행과 네덜란드 기후 녹색성장부 차관 일행, 28일은 프랑스·잠비아·오스트리아 정부관계자 일행이 방문했다. 29일에는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일행이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역량을 살펴봤다.

/유혜은 기자 dhah@ab

국내 대기업, 글로벌 위기 속 ‘모빌리티·R&D’ 인재 찾는다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 스타트

삼성 19개 계열사 공채 본격 돌입
LG R&D 등 미래 인재 집중 확보
현대차 AAM·AI 분야 경력 채용
기아 신입·경력 인재 동시 모집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미래 인재 확보와 일자리 확대에 나섰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지만 미래 인재 확보로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9월 1일부터 신입, 경력, 외국인, 장애인 인재를 대상으로 목적기반차량(PBV), ICT, 글로벌사업, 국내사업, 상품 등 26개 부문에서 진행한다. 기아가 신입, 경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현대차

력, 외국인, 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서 접수수는 신입, 외국인, 장애인 채용의 경우 9월 1~15일, 경력 채용은 9월 15~29일 각각 진행된다.

기아는 9월 1~11일 대학교 등 12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커리어 캠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스’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현직자 상담을 포함한 채용 박람회, 팝업 행사 등으로 구성돼 구직자가 회사를 접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매달 수시채용을 진행 중인 현대차는 품질관리, 보안,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인공지능(AI) ICT 등의 분야에서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기아 관계자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인재와 함께 더욱 창의적인 기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도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하반기 채용에 나선다. 올해 들어 대미 관세 부담, 주요 시장의 가전 수요 회복 지연 등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인재 확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중 유일하게 대규모 공채 제도를 유지 중인 삼성은 9월 3일까지 ‘삼성커리어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직무 적합성평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등을 거쳐 연말쯤 합격자를

확정할 전망이다.

LG전자도 하반기 신입사원 집중 채용에 돌입했다. LG전자는 9월 22일까지 LG그룹 채용 포털 ‘LG 커리어스’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및 산학협동 학생 프로그램 LGE 멤버스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로봇, 소프트웨어, 소재/재료, 통신, 기계, 전기전자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영업·마케팅 등이다.

LG전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공채 대신 필요한 지원자가 원하는 직군이나 직무에 맞춰 연중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 등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등 직무별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는 수시 채용의 장점인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원자들이 채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인 기업 644만개 돌파 ‘역대 최대치’

중기부, 고용·체력 약화에 해법 모색
3년새 3.8%p ↑, 2인 이상 기업 줄어
韓 장관 “증가세 주시, 분석 후 반영”

사장님 혼자서 일하는 ‘1인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인 이상 기업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기업의 증가세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기업 숫자는 644만개로 1년새 29만개가 증가했다. 2020년 당시 537만5000개였던 1인 기업은 2021년 579만5000개, 2022년 615만개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표자 외에 직원이 있는 2인 이

상 기업은 191만1000(2020년)→191만9000(2021년)→189만3000(2022년)→185만9000개(2023년)로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당시 73.8%에서 2023년에는 77.6%까지 증가했다. 3년새 3.8%포인트(p) 늘었다. 사장이 곧 직원인 1인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육박하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운데 2인 이상 기업은 줄고 있는데 유독 1인 기업만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인 기업 중에서도 무점포 소매업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면서 “통신판매업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유튜버 등이 대표적인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취임 30일 간담회에서 1인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1인 기업 숫자가 굉장히 많다.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스스로 고용을 하고 있는 등 1인 사업자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플랫폼의 확장으로 1인 기업이 늘었다고도 보여지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가 내놓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911만8000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귀뚜라미, ‘따숨케어’ 사후관리 대폭 강화

관리기간 5년·8년 세분화 선택 폭 확대

귀뚜라미가 현대렌탈케어와 협업해 선보이는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의 이용 조건을 9월 1일부터 대폭 업그레이드하며 소비자 편의를 강화한다.

31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는 렌탈 서비스를 더욱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따숨케어 관리 기간을 5년(60개월)과 8년(96개월)으로 세분화했다. ▲최대 8년 무상 A/S 제공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렌탈요금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고급형(거꾸로 ECO 콘덴싱 L20 가스보일러) 모델은 5년 기준 최저 월 2만7900원, 8년 기준 최저 월 1만8900원으로 따숨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귀뚜라미의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 서비스 이미지.

현대렌탈카드 제휴 신용카드로 렌탈요금 자동납부를 할 경우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2만5000원까지 렌탈요금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따숨케어 고급형 모델(22K 용량)에 8년 기간으로 가입하고, 제휴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으면 최저 월 4900원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K-中企’ 美 수출 본격화… 글로벌 도약 준비

중기중앙회-미주한상총연 MOU
내년 하반기 한국상품전시회 공동 개최
金 회장 “美, 중요한 시장… 협력 당부”

중소기업중앙회가 K-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미주한상총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을 비롯한 양 단체 주요 임원, 미주한상총연 78개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등 재외동포경제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CES 등 글로벌 전시회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내년 하반기에 한국상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시회(K-Goods Fair)를 열고, 참가기업 모집·홍보·바이어 섭외 등 전시회 준비 전반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K-뷰티, K-푸드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인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련됐다.

김 회장은 “2023년 애너하임과 2025년 애틀랜타에서 두 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며 한국상품의 저력과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한국 중소기업 수출이 매년 증가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내년 한국상품전시회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주 재외동포 경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글로벌 쇼룸’ 참가기업 30곳 모집

12월 쿠알라룸푸르서 개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 말레이시아 글로벌 쇼룸 참가기업 30곳을 모집한다.

31일 소진공에 따르면 ‘글로벌 쇼룸’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의 오프라인 현지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쇼룸은 오는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쇼룸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현지 팝업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바이어상담회를 통해 B2B거래 기회를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현지 사용자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전을 통해 고객 및 제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해 말레이시아

로 직접 가지 않고 물품만 현지로 배송하는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외 플랫폼 입점 경험이 있거나 해외 수출·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화장품과 식품 등 K-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중심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다.

말레이시아당국이 인정하는 할랄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평가 우대해 선정한다.

해외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쇼룸 운영 전까지는 반드시 해외 플랫폼에 입점해야 하고, 통관제재로 판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승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KT, 유심해킹에 과징금 1347억 적자 불가피… 3분기 실적 ‘먹구름’

증권가, 3분기 영업이익 450억 전망 추가, 1% 미만 ↓… 이미 악재 반영 전문가 “불확실성 해소… 매수 합리적” SKT, 충격에도 AI 인프라 확대 총력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일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증권가는 “이미 시장에서 악재를 소화한 만큼 주가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은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 등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에 부과했던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이 금액이 3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하고, 회수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증권가가 전망했던 3분기 영업이익 450억원 수준을 감안하면, 이번 과징금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충격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SK텔레콤은 이미 2분기에도 유심 무상교체, 대리점 보상 등으로 2500억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한 바 있다. 이때문에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과징금과 요금 할인·위



서울시내 한 SKT 직영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약금 면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1조8000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SK텔레콤도 컨퍼런스콜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실적 영향을 고려하면 배당 정책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가는 비교적 차분하다. 과징금이 발표된 직후에도 주가는 1% 미만 하락에 그쳤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시장에서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며 “높은 배당수익률(6.4%)과 내년 실적 정상화를 고려하면 매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자임에도, 개인정보위가 구글·메타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미국 T모바일은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216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고, AT&T도 178억원에 그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본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며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도 미국 T모바일이 200억원대 과징금을 받는 수준이었는데, SK텔레콤에 1300억원 이상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보안 조치를 취했는지, 또 사고 이후 고객 보호를 위해 어떤 보상책을 마련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벌금 폭탄’ 위주로만 접근하면 기업은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정보보호 투자나 보안 고도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과징금 충격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에 건립 중인 ‘SK AI데이터센터’를 그룹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이며, 최신 GPU 6만장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산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 구로까지 거점을 넓혀 총 300MW 이상 용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AI 기업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확산에 지상 인프라 한계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경쟁

AI 수요 폭증에 전력 年 최대 22% ↑ 우주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등 장점 美·EU·中 등 실증 단계로 전환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토지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상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센터가 떠오르고 있다.

31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최근 발간한 ‘AI·ICT 브리프(2025-30호)’ 보고서에 따르면, AI 연산 수요 폭증으로 인해 2026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일본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1000테라와트시(TWh)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30년까지는 연간 19~22%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냉각 시스템 가동으로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소모량이 50% 이상 증가해 운영 비용이 급증하고,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적절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지상과 달리 24시간 연속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대기와 구름이 햇빛을 차단하지 않아 지상 대비 5배 높은 발전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우주의 극저온은 진공 환경을 활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을 통해 전력효율지수(PUE) 1.05 수준의 초고효율 냉각도 가능하다.

아울러 400km 저궤도에서 빛의 전송 속도가 광섬유보다 50% 빨라 장거리 통신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사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확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지역 주민 반대나 환경 규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적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민간 스타트업과 정부 기관이 앞다투어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제미니에 의해 생성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래형 데이터센터 모습.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벤처 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은 우주 데이터센터 스타트업인 스타클라우드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위성 제작 기업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의 타당성 연구 프로젝트에 200만 유로(약 32억5270만원)를 지원하며 정부 주도로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 청두귀성항공우주기술은 지난 5월 12개 AI 위성을 발사하며, 2800개 위성 규모의 우주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IITP는 “우주 데이터센터가 이론적 연구 단계에서 실제 발사와 운영을 통한 실증 단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중국 저장연구소와 청두귀성항공우주기술의 협력은 공공 연구역량과 민간 실행력을 결합한 사례로, 한국도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는 발사 비용, 우주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유지 보수의 복잡성,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등 기술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국내외 제휴사 10곳과 ‘AI 대중화’ 앞장

‘AI 유니버스’ 출범

LG유플러스가 국내외 인공지능(AI)분야 기업·단체와 손잡고 ‘AI 유니버스’를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을 제공해 AI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에서 AI 유니버스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와 과실연 AI미래포럼, 유독픽AI에 참여하는 라이너·캔바코리아·웹도·모블다·튜링·동아시아인스·아티피셜 소사이티·플랭·코멘토·키네마스터 등 국내외 제휴사 10곳이 참석했다.

AI 유니버스는 참여 기관·기업들이 각자의 서비스와 역량을 활용해 AI 교육,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체다. LG유플러



29일 서울 강남 일상비일상의틈에서 진행된 AI 유니버스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정해운 마케팅그룹장(왼쪽에서 여덟번째)과 과실연 AI미래포럼 류정혜 공동의장(왼쪽에서 열한번째), AI미래포럼 김승일 대표의장(왼쪽에서 열두번째)을 비롯한 제휴사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스는 자사 AI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달 출시한 구독형 AI 서비스 ‘유독픽 AI’를 중심으로 AI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독픽 AI는 원하는 AI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2만 명을 확보했다. 현재 가장 많이 선택된 서비스는 검색 정확도가 높은 ‘라이너’와 디자인 지원 서비스 ‘캔바’다.

과실연 AI미래포럼은 AI 강연·토론회 콘서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맡고, 제휴사들은 각자 서비스와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대중에게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AI 유니버스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통해 AI 리더십 제고 및 사회적 인식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KT, 멤버십 고객 생활 밀착형 혜택 강화

케мп페, 한달 만에 이용 100만건 돌파 여행·나들이 맞춤 ‘달달혜택’ 눈길

KT가 가을 시즌을 맞아 멤버십 고객 대상 혜택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연·영화 초청, 외식·쇼핑 할인, 여행·레저 혜택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8월 처음 선보인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케мп페)’는 한 달 만에 이용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었다. Y위터페스티벌, ‘보야지 투자라섬(Voyage to Jarasum)’ 초청 등 차별화된 문화 혜택과 굿네치킨·파파존스 할인 이벤트가 인기를 끌었다.

KT는 9월 케мп페에서 혜택 규모를 한층 확대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인기 공연 ‘태양의 서커스 ’쿠자‘ 초청(200명), 영화 ‘어쩔수가없다’ 시사회 초청(1만 명)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호응이 높았던 올리브영·다이소·네이버페이·스타벅스 무료 쿠폰, ‘쇼핑라운지’ 최대 75% 할인, 커피·영화 무료 쿠폰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멤버십 고객이라면 모든 혜택을 중복해 이용할 수 있다.

9월 15일부터 운영되는 ‘달달혜택’은 여행과 나들이에 맞춘 구성이 눈에 띈다. ‘달달초이스’에서는 파riba게프 4000원 할인, 폴 바셋 커피 50% 할인, 배달의민족 치킨 7000원 할인, 이디야 음료 50% 할인, 도미노피자 반값 할인, 롯데시네마 7000원 예매권 등이 제공된다.

‘달달스페셜’에서는 아고다·롯데렌터카·신세계면세점 등 생활·여행 제휴 할인 쿠폰을, ‘달달찬스’에서는 스타벅스 텀블러, 다이소 상품권, 롯데시네마 가족관람권 등을 추첨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삼양식품, ‘면비디아’ 글로벌 질주… 목표주가 200만원 육박

지난달 장중 164만원… 최고가 경신
한국공장 증설 등 성장 모멘텀 주요
증권가 “200만원, 무리한 전망 아냐”

‘불닭 신화’에서 ‘면비디아’까지, 삼양식품은 글로벌 라면 열풍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새로운 별명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 공장 증설과 중국 생산기지 건설 계획이 겹치면서 성장 스토리에 힘이 붙자 주가는 200만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증권가 목표가는 190만원까지 치솟았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11.9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2.13% 상승했다. 지난 28일에는 장 중 164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삼양식품을 바라보는 시



삼양식품 밀양2공장에서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다.

/뉴시스

장의 기대는 커졌다. 불닭볶음면 수출 확대와 생산능력 증설이 맞물리면서 성장 모멘텀이 높아진 탓이다.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190만원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185만원을 제시했다. 메리츠증권은

175만원으로 끌어올리며 “실적 성장세와 글로벌 수요를 감안하면 200만원 진입은 무리한 전망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적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2022년

803억원에서 2024년 2713억원으로 2년 만에 238% 늘었다. ‘불닭’ 브랜드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미국·동남아·중동 등에서 매출이 고르게 확대됐고, 판다 익스프레스·졸리비 등 해외 외식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소스류 매출도 늘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밀양 2공장은 연간 최대 27억 봉지 생산이 가능해 기존 공장과 합치면 공급 병목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기에 2027년 1분기 중국 공장 가동 계획까지 잡혀 있어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장에서는 주주환원이 아쉽다는 평가다.

삼양식품은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배당을 이어왔고, 주당 배당금도 2020년 800원에서 2024년 3300원으로 늘었지만, 순이익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며 배당성향은 같은 기간 13%에서 8%대로 낮아졌다. 이는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동성도 취약하다. 주가가 160만원을 넘어섰지만 거래회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가 주가로 소액투자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통 주식 비율도 낮아 기관 수급에 제약이 크다. 삼성전자·현대차처럼 액면분할로 유동성을 개선한 선례에 비해 삼양식품에도 같은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도 최근 보유 목적을 4년 만에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며 배당과 유동성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넓혔다. 2020년 김정수 부회장 복귀 당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며 등기임원 선임안에 반대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주주환원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엇갈리는 코스피 전망… “매수 타이밍” vs “비중 줄어야”

〈개인〉

〈외국인〉

개인, 빅테크·성장주 중점 매수
외국인, 기대감 낮춰… 매도 전환
“지수보다 종목 중심 대응이 유리”

“지금이야 가장 싼때가 아닐까. 매수 타이밍이다.”(주식 투자자 A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외국계 투자은행 B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 전쟁’, 닷컴버블에 비유되는 ‘인공지능(AI)거품’, 더딘 경제 회복세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화살에 증시가 급등락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의 앞날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개인들은 코스피가 3100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다.

이들의 투자 입맛도 달랐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조선, AI 등 빅테크와 성장주를 사들이는 전략을 썼다. 외국인은 빅테크, 조선, 자동차, AI 등의 업종주식을 사들이며 위험을 분산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했다.

◆네이버 주가 하락에도, 개미 ‘원픽’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한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1조107억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한화오션(2965억원), LG씨엔에스(1881억원), 두산에너지(1759억원), LIG넥스원(170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1576억원), SK텔레콤(1511억원), 삼성전자(1360억원) 등 덩치큰 종목을들 사들였다.

대형주의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 기

회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AI와 조선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모습이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종은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즉각적인 대형 수주나 투자 발표는 없었지만, 미국 조선업 재건이 단기간 내 어려운 만큼 한국 조선업체들의 전략적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한 의사를 밝힌 만큼 조선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 시점이 뒤로 미뤄졌을 뿐,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카카오 잡은 외국인

8월 다시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택지는 전혀 달랐다. 외국인들은 카카오(4888억원)를 가장 많이 샀다. 이 기간 개인은 카카이를 8542억원 어치 처분했다. 순매도 1위다.

카카오와 네이버 투자성적표는 외국인 앞섰다. 7월 말 5만8000원이었던 카카오 주가는 8월 한달간 7.76% 상승했다. 반대로 개인이 가장 많이 산 네이버는 하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9만원선에 올라섰지만 지난달 말 23만5000원에서 이달 말 21만4500원까지 8.72% 떨어졌다.

외국인이 카카오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은 현대차(2524억원), 삼성중공업(2054억원), LG씨엔에스(1749억원), 한국전력(1698억원), 삼성전기(1432억원), HD현대일렉트릭(1367억원), 효성중공업(1220억원) 등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동시에, 여러 업종을 장바구니에 담은 위험회피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부담으로 지수 상승세는 둔화할 전망”이라며 “지수보다는 업종, 업종보다 종목 중심의 대응이 유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자산운용
‘S&P500인덱스펀드’
수탁고 2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 수탁고가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펀드평가사제로인에 따르면 26일 기준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UH)’는 최근 3개월 13.54%, 1년 20.14%의 수익률로 동일 유형 펀드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운용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환매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투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업계 최저보수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클래스의 경우 총 보수는 0.35% 수준으로 경쟁 펀드 대비 경쟁력을 가진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MBK 제재 착수… ‘불건전영업행위’ 초점

흙플러스 RCPS 처리 등 쟁점
중징계시 위탁운용사 지위 위협

금융당국이 흙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감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MBK파트너스에 감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제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흙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방위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됐다.

흙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는 이미 검찰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MBK파트너스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감사의견서에도 MBK파트너스가 흙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레이션(SS)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 제재 절차가 개시되면서 제재 범위와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인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국내외 영업에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

비수도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남부발전, 3420만달러 수출 성과

베트남서 186건 상담·50건 MOU
스타트업 키나바, 국제대회 1위 수상
부산외대 협력, 청년 글로벌 경험 제공
해외 판로개척, 유니콘 성장 발판 마련

한국남부발전이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3420만달러(약 457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프로젝트’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스타트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2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생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청년인재들에게 글로벌 실무경험과 취·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베트남 현지 진출 프로그램에서는 ▲B2B 투자 및업 ▲현지 창업 생태계 투어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I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중기청, 부산창경센터와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을 통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InnoEX’ 전시에 참가한 기업대표들이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류승호 영사(첫 줄 왼쪽 세 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nnoEX) 공동관 지원 ▲찾아가는 바이어 미팅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 활동이 추진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86건의 상담을 진행, 50건(약 3420만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성과도 잇따랐다. 프로젝트 지원기업인 키나바는 세계 28개국 2144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베트남 최대 창업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5’에서 ‘수열탄화를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발표해 국제 트랙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에너지스타트업이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키나바는 상금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와 함께 다양한 후속 지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스타트업 교류도 본격화된다. 주관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인 SIHUB(Saigon Innovation Hub)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베트남 응우옌 탄 단 대학교와도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현지 투자사와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것을 넘어 베트남 창업 생태계와 시장 분위기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발표와 국제행사 참여 등 모든 일지에서 실질적 성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은 인재와 기술”이라며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알리익스프레스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공정위, 과징금·과태료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공지능 활용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개시

고용부, 산재예방 AI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달부터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경력, 직무 경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잡케어+와 펌케어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이력과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인간과 AI 협업 기반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산재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AI △산재보상 심사 지원 AI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관리 및 지원 AI 등 3개 과제를 선정, 9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공공 AI 3대 선도와제’에서는 개인·기업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39억원)가 선정돼 공공부문 AI 혁신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내년 예산 37.6조 ‘역대 최대’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 등 보호
주 4.5일제 시범사업, 육아지원 확대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7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6.4%(2조27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리랜서 보호 등 안전과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시범 지원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부진 예산을 절감해 새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며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 확대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신고 포상금’(111억원)이 신설된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10억원)도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지원(433억원), 폭염 대응 예산 증액(80억원), 산재 예방 용자 확대(5388억원)도 포함됐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과 재할 지원을 강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권익센터(30개소)가 새로 운영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1500명 규모)이 복원되고,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이 신설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형태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추진한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원)도 복원됐으며, AI 노동법 상담(20억원)과 고용평등 상담실도 다시 편성됐다.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워라벨+4.5 프로젝트’(276억원)를 신설해 약 420개 기업

을 지원한다. 교대제·장시간 업종을 우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엔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은 4조728억원으로 늘린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기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163.6만명)으로 증액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늘리고, 도산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AI 중심 직업훈련에 5213억원이 투입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50억원)가 신설된다.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법과 제도로만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사·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외국인 안전보건 강사 교육 건설업 확대

안전보건공단, 맞춤형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교육’을 9월 1일부터 건설업까지 확대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맞춤형 강의자료와 교수법 교육이 함께 제공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업 고용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떨어짐, 물체 충돌, 깔림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매년 외국인 노동자 3000여 명이 다치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 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2023년부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8명의 외국인 강사가 연간 약 1200명의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건설업으로 확대, 산업현장에서 보다 폭넓은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 ▲건설업 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효과적인 강의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순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외국인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통기한 없는 웃음과 힐링
올 여름은 '올웨이즈 편의점'에서 쉬어가세요!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2021, 나무옆의자)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 ticket | 공연문의 02-332-4902

광주·부산시, 각각 AI·글로벌 허브도시 중심 미래동력 확보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광주시, 3.6조... ‘역대최대’ 규모
부산시, 가덕도신공항에 6890억

2026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와 부산시가 각각 지역 특화분야에서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문화도시 조성에, 부산시는 교통 인프라와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광주, AI 중심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

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61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72억원(10.1%) 증액된 수치다. 광주시는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2단계 사업 예산 240억원,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문화도시 조성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5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10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1억 5000만원) 등 3대 국가문화시설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모두 반영됐다. 이외에도 비엔날레전시관 건립(55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45억원) 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1665억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267억원이 증액됐으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238억원을 배정받았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중심 글로벌 허브 도약

부산시는 구체적인 총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만 6890억원의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서부산 교통망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300억원), 하단~녹산선(370억원) 건설과 대저대교(70억

원), 엄궁대교(320억원) 등 낙동강 횡단 교량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부산시는 또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했다. 북항 글로벌 창업허브(50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AI 대전환사업(70억원)과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111억원) 등 신산업 육성 예산도 확보했다.

◆지역별 특화 전략 뚜렷

두 도시의 예산 확보 전략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뚜렷하다. 광주시는 AI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AI 중심도시’라는 두 축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허브 구축과 금융·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와 부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 확정될 예산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보성군

보성고, 자율협 공립고 2.0 선정

보성고등학교(교장 김문주)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보성교육지원청과 보성군청이 협력한 결과로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교육 혁신의 대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성고는 이번 선정으로 ▲지역 특화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학생 소질·적성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등을 추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전국 최다’

전남도는 올해 89개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해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다. 국가인증(유기축산·무항생제·HACCP 등)을 받은 축산농가가 사양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일반농가 기준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하면 인증해준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전남에서는 올해 89곳이 추가돼 총 148개 농가로 확대됐다. 전국 인증농가의 25%를 차지하며 최다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박차

경북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미공급 지역 지원을 늘리고 도시가스 회사의 시설 투자를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1.6%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85.6%는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평균 72.5%보다 낮다.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1만8424㎢)과 두번째로 낮은(140.6명/㎢) 인구밀도로 가스 배관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광주시

AI·車·에너지 8개 기업 투자유치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 산업 8개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약속했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자동차·에너지 산업 8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투자금액 593억원, 고용창출 189명 규모의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협약 기업은 커먼코딩(서울), 두리에너지(경기), 이인(광주), 신소재산업(광주), 이노특장(전남), 디에이치오토아이(경기), 인프라엑스(광주), 한아(광주) 등 지역기업 4개사와 타지역기업 4개사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확정 “경북 칠곡으로 ‘둘리 엄마’ 보러오세요”

철강기업·협력업체 어려움 해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우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세계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철강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과 정치권, 기업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불공정 수입세 유입 등으로 철강산업 악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 7월 18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일 현지 실사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정에 따라 포항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을 우대받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대상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 2년 거치 5년 만기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같은 조건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6%에서 12%로,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0%에서 25%까지 상향된다.

또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과 기술 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병행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금융·재정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가산수피아에 공룡 로봇 설치

아기 공룡 둘리가 애타게 찾던 엄마가 경북 칠곡군 가산 숲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은 연간 30만 명이 찾는 가족형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국내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가산수피아’에 세워진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 때문이다. 길이 42m에 달하는 이 로봇은 제작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움직이는 공룡으로 알려졌다.

멀리 도로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머리는 아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목을 흔들고 꼬리를 움직일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고, 일부 아이들은 놀라 달아나기도 한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해수부 이전 대응 정부라인 재편

내부 재배치·외부 전문가 영입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대응과 민선8기 후반부 시정 성과 완성을 위해 9월 1일자로 정부라인을 전면 재편한다. 이번 인사는 내부 역량 재배치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부 재배치를 살펴보면,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임용으로 공석이 된 정책수석보좌관 자리에는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이 발탁됐다. 전 보좌관은 민선8기 시정철학과 비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받아왔다.

서울본부에 신설된 대외총괄보좌관에는 박광명 대변인이 임명돼 새 정부 정책환경 변화 대응과 국회 등 대

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후임 대변인으로는 원영일 시민소통보좌관이 임용됐다.

외부 전문가 영입에서는 김민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정무기획보좌관에 전격 발탁됐다. 김 보좌관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정무적 해결역량과 정책기획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외협력보좌관에는 이치우 전 대통령실 정부행정관이 임용돼 폭넓은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을 활용하게 된다. 또 기존 정책협력보좌관 역할을 확장한 미래전략보좌관에는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이 임명돼 부산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화순군, 신혼·다자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최대 36개월간 月25만원 지원
오늘부터 총 11가구 신규모집

화순군이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며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전라남도도와 화순군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당 월 최

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화순군 내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이다. 화순군 신규 모집 가구 수는 총 11가구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12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잘 나가는 ‘셀럽 주류’… 편의점업계, 매대풍경 확 바뀌었다

셀럽이 제작 참여… MZ세대 호응
침체된 주류 시장 구원투수 부상
“초기 화제성 넘어 맛·품질 갖춰야”

배우, 가수 등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이른바 ‘셀럽 주류’가 침체된 내수 주류 시장의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전통 주류 시장이 점차 위축되는 가운데 셀럽들이 이름을 걸고 만드는 술을 중심으로 편의점 주류 판매량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수를 낮추고, 주종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전략이 MZ세대의 호응을 얻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CU가 지난 4월 선보인 지드래곤의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은 1000만 개 이상 판매됐다.

GS25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방탄소년단(BTS) 전의 ‘아이긴 애플토닉 하이볼’은 누적 100만 개를 돌파했다. 지난 달 중순 선보인 안성재 셰프의 ‘소비뇽 레몬블랑하이볼’은 50만 개 넘게 팔리며 GS25 하이볼 판매 1위에 올랐다.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하정우의 와인 ‘파키키 소비뇽블랑’은 출시 3주 만에 초도



CU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

물량 20만 개가 완판됐다.

셀럽이 단순 광고 모델을 넘어 직접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가수 소유는 하이볼 브랜드 ‘쏘하이볼’을, 배우 안소희는 ‘쉬머’를 론칭했다. 추성훈 역시 사케 브랜드 ‘아키(AKI)’를 선보였다. 이들은 직접 기획부터 레시피 개발, 시음, 라벨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제품에 스토리를 입히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셀럽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 고객의 흥미와 신뢰를

만족시키며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셀럽 주류의 흥행은 젊은 층의 주류 소비 변화와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2024년 국내 희석식 소주 출고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 맥주는 3% 감소했다. 취하기 위해 마시기보다 다양한 주종을 체험하며 가볍게 즐기는 ‘소버 라이프(Sober Life)’ 트렌드가 자리 잡은 영향이다.

편의점들이 셀럽 주류로 공략 전략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GS25 ‘소비뇽레몬블랑하이볼’

GS리테일 관계자는 “고도주보다 탄산, 과일향이 함유된 맛있는 저도주를 즐기는 MZ세대 문화가 제품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도 열풍에 불을 지폈다. 과거 TV에서 금기시됐던 셀럽의 음주가 유튜브에서는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신동엽, 성시경 등은 직접 주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친근감을 높였다. 신동엽과 협업한 세븐일레븐의 주류는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은 소비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다양한 맛과 테마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인기의 수명도 짧아지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2022년 매출액 278억원, 영업이익 107억원을 기록했던 박재범의 ‘원스피리츠’는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2억 원, 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1년 1520억 원에 달했던 수제맥주 시장은 2023년 752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곰표맥주’를 선보였던 세븐브로이는 최근 상장폐지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조 속에, 초기 화제성을 넘어 맛과 품질로 소비자의 재구매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셀럽 주류 역시 신선함을 잃고 소비자들의 관심 밖으로 급세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식품업계, 밤·고구마 등 ‘제철코어’ 신제품 봇물

던킨 이달의 도넛 ‘가을 밤 필드’ 선보여
투썸플레이스 고구마 케이크 출시
롯데월드 고창 고구마 시리즈 12종

식품업계가 가을을 맞아 밤·고구마 등 제철 식재료를 앞세운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를 계절감을 더하는 ‘제철 코어’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지역 특산물 가치를 강조한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지금이 아니면 구매하지 못한다’는 심리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 업계의 경우 제철 메뉴 출시 때 평균 객단가가 10~15% 상승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9월 ‘이달의 도넛’으로 ‘가을 밤 필드’를 선보였다. 국산 밤을 사용해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하고, 밤과 우유를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 /투썸플레이스

조합한 필링을 가득 채워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밤 모양을 본뜬 디자인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남녀노소 사랑받는 제철 밤을 활용해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도넛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카페 브랜드 투썸플레이스는 고구마 무스와 생크림을 풍성하게



‘고창 고구마 시리즈’ 12종 /롯데월드

레이어링한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 폭신한 시트와 달콤한 고구마·고소한 생크림 조합으로 세대불문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롤 케이크와 피스 케이크 2종으로 판매된다.

전통주 업계도 가을 한정 마케팅에 합류했다.

서울장수주식회사는 밤을 활용한 막걸리 ‘달밤장수’의 유통 채널을 전

국 편의점으로 확대했다. 쌀막걸리에 찐 밤으로 만든 마론 소스를 더해 달콤한 풍미를 살린 제품으로, 2030세대가 혼술·홈술은 물론 디저트와 곁들이기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롯데월드는 전북 고창군과 손잡고 가을 시즌 한정판 ‘고창 고구마 시리즈’ 12종을 선보였다. 카스타드 꿀고구마 라떼, 마가렛 꿀고구마 라떼, 빈츠 꿀고구마, 빵빠레 꿀고구마 등 대표 브랜드에 고창 꿀고구마의 달콤함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밤·고구마 등 가을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은 계절 한정 희소성과 지역 특산물 가치가 더해져 소비자 반응이 크다”며 “제철 코어 트렌드는 앞으로도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쿠팡 ‘쿠팡 기프트카드’ 카톡 선물하기 입점

쿠팡이 ‘쿠팡 기프트카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식 입점했다고 31일 밝혔다.

쿠팡 기프트카드는 금액을 선물해받는 사람이 직접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선불형 온라인 상품권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선물을 수락하면 해당 금액이 ‘쿠팡캐시’로 충전돼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점을 통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들은 ‘쿠팡 기프트카드’ 또는 ‘쿠팡 이츠 기프트카드’를 검색해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면세점 中 관광객 대거 유치

신세계면세점이 지난달 28일 명동점에 중국 유제품 1등 업체 이리(伊利) 그룹의 장기 우수 고객 1109명을 유치하는 등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가 잇따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리그룹이 산양(山羊) 유제품 장기 이용 고객(VIP)을 대상으로 마련한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현재 단일 인센티브 단체로는 최다 인원 규모다.

같은 날 중국 온라인 교육 업체 1위 신동방(新东方) 그룹 산둥성 제남시부 소속 우수 교직원 인센티브 단체도 첫 일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을 방문했다.

신동방 그룹은 오는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300명이 차례대로 방문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지부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누적 1000명 이상이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손종욱 기자

롯데백화점, 국내 최대 ‘하고하우스’ 오픈

디지털 기반 매장 리뉴얼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29일 ‘하고하우스(HAGO:HAUS)’의 국내 최대 매장을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롯데월드몰 하고하우스는 지난 2022년 문을 연 전국 매출 1위 매장으로, 리뉴얼을 통해 디지털 기반 매장으로 개편했다. ‘AI 아티스트’ 김정수 작가와 협업해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100평대에 매장에는 마팽킴, 드파운드, 유니폼브릿지, 뽀빠에르, 오아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하고하우스’ 매장 전경 /롯데백화점

오아이 컬렉션 등 19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매장 중심에는 ‘하고 서울 익스클루시브 존’을 마련해 롯데월드몰 단독 상품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 4일부터 ‘고래잇 페스타’ 돌입

생활용품 등 전방위적 초저가 할인

이마트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9월 고래잇 페스타’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컨셉은 ‘가을할인 대작전’으로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까지 전방위적인 초저가 할인을 펼친다.

‘고래잇 페스타’는 고객들이 ‘꼭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취지를 가진 대규모 할인 행사다.

9월 고래잇 페스타 ‘가을할인 대작전’으로 제철 신선식품부터 가공, 생활, 가

전제품 등을 과격 할인한다.

가을 제철 신선식품인 햇꽃게, 햇사과부터 한우, 삼겹살, 계란, 자연산 참다랑어회 등 필수 식재료, 단독상품까지 과격 할인가에 내세운다.

만두와 두부, 시리얼, 치즈 등 가공식품과 세제, 칫솔과 치약,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은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레몬 베이스로 만든 등심 탕수육, 안유성 셰프의 레시피를 반영한 단독상품 ‘안유성 광주옥 들기름 메밀면’ 등 이마트만의 신상품, 단독상품도 선보인다.

대형가전을 구매할 경우 금액에 맞춰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손종욱 기자

GC녹십자, 희귀질환 치료제 전진… 글로벌 고부가가치 공략

헌터라제ICV, 뇌실투여로 한계 돌파
산필리포 신약 GC1130A, 임상 가속
파브리병 LA-GLA, 피하주사 편의↑
美 알리글로, 1년 만에 매출 1000억
세계 첫 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

GC녹십자가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앞세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대표 품목인 ‘알리글로’가 미국 시장에 안착한 데 이어,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국내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이는 올해 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후 6개월여 만의 후속 조치다.

헌터라제ICV는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뇌실 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약물이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도달해 인지 능력 상실, 뇌 병변,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까지



GC녹십자 본사 전경.

/GC녹십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헌터증후군은 지능 저하, 골격 이상 등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70%에서는 중추신경 손상이 발생한다. 기존 정맥 주사의 경우, 약물이 뇌혈관장벽(BBB)을 투과하지 못해 치료에 한계가 있다.

GC녹십자는 뇌실 내 직접 투여(ICV) 제형을 독자 구축했고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헌터라제ICV는 2021년 일본, 2024년 러시아에서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GC녹십자는 차별화된 제형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GC1130A’ 개발에도 역량을 쏟는다. 현재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다국가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적용해 뇌실 내 직접 투여가 가능한 기전을 규명하고 계열 내 최초 신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GC1130A 비임상에서는 뇌실 내 직접 투여(ICV) 제형이 척추강 내 직접

투여 대비 47배 높은 약물 전달 효과를 갖췄다는 결과를 입증했다. 오는 2028년까지 파이널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5년 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산필리포증후군 A형의 주요 증상은 심각한 뇌 손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다.

한미약품과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브리병 치료제 ‘LA-GLA’ 임상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 한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순차적으로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LA-GLA’는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을 갖춘 약물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2주에 한 번은 병원에서 수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정맥 주입에 따른 부작용 등 기존 치료법의 한계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쓰이는 혈액제제 ‘알리글로’는 K블록버스터 약물 후보다. 국산 혈액제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다. 미국 진출 1년 만인 올해 7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며 수익 창출 기반도 다졌다. 알리글로 처방

확대에 힘입은 GC녹십자는 올해 2분기 혈장분획제제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8%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재 알리글로 투약 누적 환자수는 500명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안에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GC녹십자는 희소 백신으로도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는 지난 4월 품목허가를 받은 제39호 국산 신약이다.

배리트락스주의 주성분은 탄저균을 방어하는 항원 단백질인데, 이 항원 단백질은 GC녹십자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제조한다. 인체가 탄저균에 감염됐을 때 생성하는 독소가 탄저병 예방을 위한 주요 면역원으로 작용하는 기전을 이용했다. 기존 탄저백신이 배양액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화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희귀의약품 시장은 공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해당 시장 진입에 성공 시 지속가능한 성장, 높은 수익성 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외 희귀질환 시장에서 K신약의 입지와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커피만 마시는 곳 아냐”… 스타벅스, 힐링 공간으로 변신

익산부송점, 커피 숲 정원 선보여
기장임랑원점, 바다전망·정원 매력
용인·대전·전주, 숲·루프탑 품은 명소

스타벅스 코리아가 막바지 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9월을 맞아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정원, 산책로가 갖춰져 있어 사색과 힐링 공간으로 안성맞춤인 매장을 소개했다.

지난달 29일 오픈해 가장 최근 선보인 익산부송점은 도심 속 커피 숲을 콘셉트로 매장 외부에 정원과 작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 3면을 모두 통창으로 설치해 자연광을 확보하면서 개방감을 높였으며, 매장 외벽과 연결되는 벤치석을 조성해 커피를 즐기면서 외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익산부송점은 일반매장과는 차별화



스타벅스 익산부송점 야외 정원. /스타벅스 코리아

된 디자인과 콘셉트를 적용한 스타벅스의 하이프로파일 매장이다. 스타벅스는 이번 익산부송점을 포함해 독섬한강공원점, 여의도한강공원점 등 전국적으로 지역의 명소로서 대표성을 띠는 20여개 이상의 하이프로파일 매

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임랑해안길에 위치한 기장임랑원점은 상아색의 벽돌과 뾰족한 양쪽 방향으로 경사가 있는 박공지붕의 외관이 특징인 매장이다. 다양한 나무와 꽃꽂이 등이 우거진 넓은 정원이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있으며, 자유롭게 오솔길을 따라 정원을 거닐며 커피를 마시면서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매장 옆에 특별히 조성된 글라스하우스에는 3m 높이의 베어리스타(스타벅스 마스코트)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

용인고기동원원지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개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독채 매장으로 숲속 산장을 연상시키는 외관을 갖췄다. 매장이 들어설 부지에 있던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매장 건물이 수목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수목이 어우러진 야외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소나무 숲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전용운점은 ‘ㅁ’자 형태의 건물 가운데 조성된 중정을 비롯해 야외 정원을 갖춘 매장으로 중정을 4면으로 둘러싼 통창을 통해 1층과 2층 어디서나 정원 조경을 감상할 수 있다. 중정은 다양한 나무들과 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으로 꾸며져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콘셉트를 최대한 구현했다.

끝으로 전주에코DT점은 3층 루프탑에서 시내 전경이 내려보이는 탁 트인 뷰를 경험할 수 있다. 매장에서 야외 정원 연결되는 길목에 연못을 배경으로 아치 형태의 조각물이 어우러져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으며, 야외 정원은 사각으로 공간을 구획한 뒤, 작은 연못과 잔디밭을 바둑판처럼 배열하는 조경미를 연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국제약

피부 탄력·진정 동시에
민감피부 고민 케어 강화

엑스퍼트 마데카 액티브 PDRN 선택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고기능성 탄력크림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테카 피디알엔 등을 함유한다. 특히 테카 피디알엔은 연어·병풀·어성초·마린·장미 피디알엔(PDRN) 등 각기 다른 분자량을 가진 5가지 피디알엔(PDRN)과 로즈위트를 배합한 성분이다. 피부 속 탄력을 채워주는 데 도움을 준다.

또 ‘5-스킨 리뉴 콤플렉스’를 처방해 피부 장벽 손상, 속건조, 붓기, 색소 침착 등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진정 기능까지 갖췄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은 탄탄한 피부 탄력과 전문적인 피부관리 후 흔히 나타나는 피부 자극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성분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센텔리안24 ‘엑스퍼트 마데카 크림 액티브 리뉴 PDRN’ /동국제약

한우·꽃감·식사권까지…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추석 선물 선택

2만~20만 원대, 가성비·프리미엄
오메기떡 등 건강 웰니스 선물 눈길
온라인 주문·선물하기로 간편 구매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추석을 앞두고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2025 추석 선물 세트’를 오는 9월 28일까지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최근 고물가 속 양극화 현상 트렌드를 반영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고객이 가치있는 선

물을 전할 수 있도록 ‘가성비’와 ‘프리미엄’ 상품으로 나뉘어 기획됐다. 가격대는 2만 원대 실속형 상품부터 20만 원대 프리미엄 상품까지 40여 종의 다채로운 상품이 마련됐다.

프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1++등급 한우, 프리미엄 혼합 과일, 제주은갈치 등 산지 직송 중심의 상품을 강화했다.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을 위해 2~4만 원대의 실속형 김세트 부각 세트, 켄싱턴 시그니처 타월 등 가성비 높은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건강

을 생각하는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지리산 천연 벌꿀, 상주 꽃감, 제주오메기떡 등 차별화된 상품도 눈길을 끈다.

특히 물건 대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켄싱턴호텔 여의도의 미식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레스토랑 식사권 2종을 판매한다. 스시&그릴 라이브 다이닝 ‘브로드웨이 뷔페 식사권’과 정통 스테이크 하우스 뉴욕뉴욕의 시그니처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뉴욕뉴욕 식사권’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

물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 외에도 켄싱턴 베어 키링 및 인형, 디퓨저 등 켄싱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그니처 상품들도 구매할 수 있다.

2025추석 선물 세트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유선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앱 온라인 스토어, 카카오톡 공식 판매 채널(시그니처 바이 켄싱턴) 등으로 바로 주문 가능하다. 배송은 9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연계해 간편 주문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서울시가 구해주는 **신혼집, 미리내집**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없는 전세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결혼 예정 및 7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 유무 무관)


39㎡ 부터 84㎡ 까지
다양한 면적


입주 후 아이 출생 시
최장 20년 거주


2자녀 출생 시
시세 90% 매입
(3자녀 시 80%)





창진원, '韓 ESG대상'서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인정
창업진흥원이 '제20회 2025 대한민국 ESG대상'에서 민관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ESG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31일 창진원에 따르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및 확산과 공정·신뢰 기반의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앞줄 가운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진원



NH농협은행, 홍콩 현장경영… 글로벌 사업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NH농협은행장(가운데)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아시아권 국외 점포장 워크숍'을 통해 글로벌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29일 홍콩지점을 방문해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낸 직원들을 격려했다.

/NH농협은행

벤처기업협회 'LP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벤처기업협회가 민간 벤처투자 저변확대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LP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제1기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31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LP(전문유한책임투자자)와 엔젤투자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기반을 넓히며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승호 기자



GS리테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GS리테일이 9월 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GS리테일 주력 사업인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동시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사업별 채용은 각각 두 자릿수 규모로 예정돼 있다.

/GS리테일



동아쏘시오그룹, 신입사원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8월 28일 경북 상주 공검초등학교에서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약 60명과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동아쏘시오그룹 직원들은 복도, 급식소 등 교내 곳곳의 노후 벽면을 벽화로 꾸몄다. 밝고 따뜻한 색감을 활용해 동심을 표현했다.

/동아쏘시오그룹

인사

◆파이낸셜뉴스 △IT전문 대기자 이구순

삼성전자, 강남서 장 줄리앙 협업 '폴더블 체험존' 선포

코엑스서 1030세대 호응 힘입어
강남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삼성전자가 아티스트 장 줄리앙과 협업한 갤럭시 체험존을 강남에 새롭게 열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힌다.

삼성전자는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종이 인형을 모티브로 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전시 체험존을 오는 9월 28일까지 삼성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장 줄리앙과 협업한 '더 갤럭시 언폴더스' 대규모 체험존을 선보였다. 코엑스 체험존은 최종 누적 방문객 17만 6000여 명, 1030방문객 비중 80%를 기록하는 등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젊은 층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030 세대가 많이 찾는 장소인 강남역 인근의



삼성 강남에 새롭게 오픈한 장 줄리앙 종이 인형 모티브의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전시 체험존 'INTO the Galaxy UNFOLDERS' 외부 전경. /삼성전자

삼성 강남에서 체험존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이번 체험존은 '인투 더 갤럭시 언폴더스' 타이틀 아래 앞서 코엑스에서 선보였던 종이 인형 캐릭터와 갤럭시 폴더블폰에 대해 더 자세한 세계관 내용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먼저 방문객들은 삼성 강남 외부에 크게 씌워진 13개 캐릭터 이미지와 대형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송출되는 대표 캐릭터 영상을 맞이하게 된다.

전시 체험존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몰입도를 높였다.

여성벤처協-코엑스, 해외 판로확대 지원

여성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맞손'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코엑스와 함께 여성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 여벤처협회는 지난 29일 코엑스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사에서 여성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여성벤처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코엑스 주최 전시회 참가 기회 확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여벤처협회는 협회가 보유한 여성벤처기업 네트워크와 코엑스의 글로벌 전시·마케팅 인프라를 결합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판로 개척 등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미숙 회장은 "최근 여성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운데)와 협력사 '최우수 소장'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우수 협력사 소장 포상제 추진

8명 최우수 소장에 상패·포상금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수 협력사 소장 포상제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번 제도는 협력사 소장의 현장 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8명의 최우수 소장이 참석해 상패와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본부 경영진과 최우수

협력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 30여명이 자리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함께 나눴다.

이한우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건설업은 사람이 중심인 산업인 만큼, 현장의 리더인 소장님의 전문성과 판단력, 책임감이 곧 현대건설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기업 단위 포상과 달리, 건설 현장의 핵심 리더인 협력사 소장의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 포상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지원 기자 jiw13@

동서발전, 품질혁신 우수성 입증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서
대통령상 5개 수상 성과

한국동서발전이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5개를 수상하며 공기업 품질혁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분임조 320개 팀, 약 7000여 명이 참가했다.

동서발전은 ▲현장개선 ▲탄소중립 ▲6시그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야에서 출전해 금상 4팀, 은상 1팀을 차지하며 총 5개의 대통령상을 획득했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메가와워 분임조는 '복합

화력발전 공정개선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주제로 설비·운전 절차 최적화를 통해 연간 약 6000만 원 상당의 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先導)경영,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正道(正道)경영의 경영방침 아래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이어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서도 3개 팀 전원이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 경쟁력도 입증했다. 오는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는 6개 팀이 출전해 우수 품질경영 사례와 개선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폴무원 뮤지엄김치간, 어린이 그림 공모전

오는 11월 22일 '김치의 날' 알려

폴무원 뮤지엄김치간이 오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상상력 속에서 김치와 K-Food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돕고

자 주제를 '어린이가 꿈꾸는 K-Food 세계(with 김치)'로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K-Food 알리기 ▲나만의 K-Food 나라 상상해 보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8~13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UX MUNDI

실존의 순간, 지구 행성 사회의 활로

“우주 시대를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세계를 열어갈 것인가.”

현대문명의 꽃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오는 우주의 소식.
‘그 모든 것’의 시원에 관한 신비로운 소식이
최근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하늘 너머 하늘.’
‘그 너머 하늘...’
신비로운 창공의 품 안에서 인류는 지금 인간이 창조한
또 다른 지능과 함께 변영의 미래를 꿈꿉니다.

현대사회의 그런 상징적 현실 이면엔 또 다른 현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구 행성의 기후 체계.
깊어지는 환경과 생태계 교란. 기아, 빈곤, 질병, 양극화의 위기,
통제 밖 인공 지능의 실존적 위험과 핵 대전 가능성...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라는
유례없던 화두를 던집니다.

“미래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격변하는 문명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공존과 협력의 가치.
함께 일궈갈 인류 공동의 목표.
차이를 넘어, 경계를 넘어, 시공을 넘어 함께 모색해야 할 이 과업은
더이상 미래의 과업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전환 문명의 시대.
새 시대는 새로운 발상을 요구합니다.
인간과 생명, 문명과 사회, 지구와 우주는 결국 하나의 현실입니다.
무한한 연결과 결맞음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인류의 현실을 전일적(全一的)으로 사유하는 일은
우리가 염원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변영의 미래를 열어갈 첫걸음일 것입니다.

경희는 인류 역사의 분기(分岐)에서 Lux Mundi - ‘세계의 빛’을 향한
문명의 활로를 모색합니다.

1981년, 경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는 유엔 제3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세계평화의 날은 매년 9월 21일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공공협력

1951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정초(1949년 설립), 경희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 공표	1981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유엔 총회 제정안 발의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경희학원장)	2006 UN DESA-경희대학교 교류 협정 체결
1954 농촌운동, 자연보호운동 전개	1984 평화복지대학원 개원	2009 세계시민포럼(WCF),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UN DESA-경희대 공동 개최
1965 잘살기운동 제창	1986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세계시민 교과서 발간	2011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1965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발의	1990 ‘네오르네상스 운동’ 전개	2011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개최
1971 경희의료원 설립	1993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2011 경희대학교 유네스코 석화기관 지정
1975 ‘밝은사회운동(GCS Movement)’ 선포	1998 ‘지구공동사회대헌장’ 선포	2015 경희미래리포트 발간
1979 ‘21세기를 향한 세계학술회의’ 로마클럽-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공동 국제 심포지엄	1999 ‘1999 서울 NGO 세계대회’ 개최	2015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공동 주최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 개최	2001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	2018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
	2006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2024 미원평화상 제정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5.9.9(화) 10:00 ~ 12(금)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경희사이버대학교

2026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5.12.01(월)~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
2026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5.11.11(화)~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사용과 감독책임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업무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임직원 본인)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등의 범죄와 관련해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저작권법 제11장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등을 저

지르는 경우에 회사는 위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임직원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회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을 판결을 상고기각을 통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2890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관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사용했고, 해당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었다.

위 사안에서 회사 측은 주의·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의 게시물인 점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회사는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의·감독의무에 대한 입증은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중요한 방어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기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서 회사 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바른

3%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10년전 유기건을 입양했다. 1살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가 어찌나 이쁘던지.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쓰러질까. 줄이 풀려 다른 곳으로 가면 어찌나하는 우려에 2년간 산책을 하지 않았다. 사회생활 시기를 놓쳐서 일까. 이제는 개가 되어 버린 그는 다른 개와 다르게 좋아하는 표현을 으르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도 짖는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글까’라는 말이 있던가. 일어나지 않을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게 만든 셈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지자체와 협업체 건강검진부터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도 장기 연체일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를 넘지 못하고, 대출을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대출 원금의 80%를 깎아준다. 10년간 나눠 갚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다. moral, 세상의 옳고그름 혹은 도덕적인 것에 hazard,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특성이나 상황을 말한다. 정책 의도와 달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의무를 하지 않을 이들을 우려

하는 의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던 시기 ‘새출발기금’을 발표하며 “우리는 97%와 98%의 세상에 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2000만 명 차주 중에 신용불량자는 70만 명, 3%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용불량은 10만 명이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장을 못 담글 만큼 구더기가 무서울 수도 있고, 그 구더기가 무서워 장담그는 시기를 늦추려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그거나 시기를 늦추는 행동은 외려 더 큰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3% 내에서 나타날 모럴해저드가 무서워 법안·정책을 늦추는 것은 더 큰 경제회복을 늦추는 길이다. 정책 본인의 이익 때문에 3%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길 바란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일 (음 7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닭 날이나 칠성 기도를 해보자. 48년생 투기만을 도모하면 가난은 이미 싹트고 있는 중. 60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72년생 기쁨이 넘치는 순간 근심. 84년생 거울을 보니 이태백의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 시가 생각.



37년생 오늘은 유난히 바쁜 날이다. 49년생 먼 길을 돌아서 원점으로 복귀. 61년생 영업의 실적에서 이득이 보이니 실망하지 않도록. 73년생 내 마음은 호수 같이 평온. 85년생 초월자나 절대자는 사람과 다른 형상으로 존재하는가.



38년생 까닭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가서 머느리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50년생 정신의 세계가 중요하듯 물질도 중요. 62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라. 74년생 하루 먹는 양은 많아야 세끼인데. 86년생 좋아하는 일을 맡게 된다.



39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처면 언제나 용기가 된다. 51년생 평온한 바다를 떠다니는 기분. 63년생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적성도 중요하지만, 직업이 있어야. 75년생 지난 일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87년생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40년생 이성문제는 스스로 억제해야. 52년생 나무자주 만나면 친한 사이도 도리어 멀어진다. 64년생 실적을 위해 친구들과 노는 것은 포기. 76년생 퇴근하고 미장원 가서 파마머리를 해본다. 88년생 길이 막혔으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41년생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53년생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65년생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게 당연하니 자제를. 77년생 뛰다 보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89년생 직장에 도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신경을.



42년생 가정사의 대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길한 날을 잡았다. 54년생 맑은 풍속을 따라야 생활이 들뜨지 않는다. 66년생 같은 유의 사고는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78년생 행동으로 보여줘라. 90년생 처세에 어두운 사람도 있기 마련.



43년생 상처도 시간이 가면 새살이 돋는다. 55년생 부동산문제는 시대 탓으로 질곡에 빠지면 우울증 온다. 67년생 5시 이후 차량 안전주의. 79년생 개운이란 신비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91년생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능통해야 한다.



4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56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68년생 사건에 대해 이성 점을 찾아야. 80년생 점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92년생 충동적인 과소비를 조심.



45년생 인생의 수업료 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자. 57년생 머리에 저장해야 미래의 후원자가 될 터. 69년생 이순신 장군은 주역에 익숙한 군인이다. 81년생 집을 나가서 민망한 일을 조심. 93년생 세상에 나쁘지만 한 일은 없구나.



46년생 누구에게나 비춰주는 태양에 감사. 58년생 내가 투자한 것인지 도박을 한 것인지 되돌아보라. 70년생 황재 운이 있으니 부모님의 재산 증여도 있다. 82년생 변명과 사과의 여지도 없이 뻔뻔하지는 말자. 94년생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47년생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섬 가진 사람에게 꾸어 달라 한다. 59년생 부기는 돌고 도니 자신의 실천 여부로 결정. 71년생 술을 적게 마시면 실수가 적어진다. 83년생 취미가 정해질 것. 95년생 가계부를 쓰고 저축으로 불의의 근심을 방지.



김상회의四季

숙명론과 운명론

숙명과 운명은 비슷한 뜻이면서도 다르다. 단어도 다르지만, 숙명은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의 궤도라 한다면 운명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행하냐에 따라서 궤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숙명이 운명이나 아니면 운명이 숙명이나를 따지는 것도 부질없을 수가 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결과는 분명 개인의 의지와 그의 의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은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된다. 사주 분석은 논리에 의해 기승전결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감명되는 내용에 따라 결정 방향을 설명하다 보면 누구는 파르고 누구는 무시한다. 사주감명이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참고해서 손해를 볼 것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체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람들은 의외로 사주감명의 결과를 잘 받아들이며 잘 따랐다. 반대로 수동적, 체념적인 사람들은 상담결과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심의 마음을 보이며 사무실을 떠나곤 했다. 혹자는 필자가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상담결과를 따른 사람 중에 고맙다며 다시 인사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치인 것이니 사실이 그렇다. 인생살이는 한 번이고 그 한 번의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계효용으로 살아야 하니 믿고 따르는 태도는 굳이 낭비가 아닐 수 있다. 역학에 매진해 온 역학도들 중에서도 사주의 영향을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기도 하고, 이구동성으로 절대적 신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두부류다. 인생사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연연해 할 것은 없다.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운명을 숙명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의 단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 365

153문제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5	3	4		6		8		2
		2						
7						3	4	
	7	8			5	9		
1		3			6			8
		6	7			1	5	
	2	5						6
						2		
3		7		4		5	8	9

		3		5	4		6	2	8
	9						4		
8						6	2	9	
						2	3		6
	4			6				8	
5		6	3						
	7	3	6						2
		9						4	
2	5	8		1	4			6	

청년 올린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정치권 “피해 구제·제도보완 시급”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문제 불거져
정치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나경원 “청년 보호장치 제공해야
제도개선 통한 후속 지원방안 필요”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 되면서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청년들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제2의 전세사기’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전역 15개 단지, 총 3166 가구이며 피해 추정액은 수백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의 ‘코브’ 단지는 총 128 가구 중 50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고,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서울시는 대책을 내놓고 긴급하게 퇴거를 바라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들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실

뒤 가장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하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 안심 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환 시점에 대한 일정은 없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실상 사각지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명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은 행정적 관리·감독의 명백한 실패”라며 비판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를 핑

계로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 A씨는 “서울시가 선·후순위 구분 없이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추진, 자치구의 신속한 매각 진행,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킨 자신의 실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SKY 중도탈락 역대최대… 의대 증원 영향

서·연·고 중도탈락 학생 수 2481명
의학계열 진학 위한 ‘반수’ 현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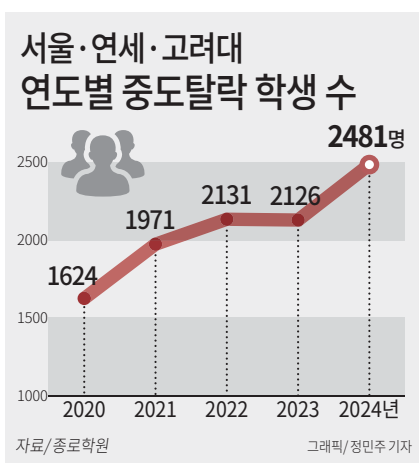
국내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에서 지난해 중도탈락 학생 수가 2481명으로 집계돼, 2007년 대학알리미 공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인문·자연계열을 가리지 않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29일 대학알리미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연고 중도탈락자는 2024학년도 기준 총 2481명으로 전년(2126명)보다 355명(16.7%)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첫 공시 당시 889명에 비해 2.8배나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485명(인문 103명, 자연 369명) ▲연세대 942명(인문 414명, 자연 487명) ▲고려대 1054명(인문 400명, 자연 638명)이 중도탈락했다. 이 중 자연계열 탈락자가 149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문계열은 917명, 예체능은 70명이었다.

전년 대비 인문계열 탈락자는 154명(20.2%) 증가했다. 특히 고려대 인문 탈락자는 114명(39.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자연계열 탈락자는 173명(13.1%) 증가했으며, 서울대 자연계열 탈락자가



53명(16.8%) 늘었다.

학과별로는 상위권 인기 학과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도 경영·경제·국제학부 등 상위권 학과 탈락자가 대거 발생해 이과생 문과 침공 및 의학계열 재도전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서연고 중도탈락자 급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취업난 장기화 속에서 의대·의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연고 학생들이 대거 의대 재입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의대 정원은 일부 축소됐지만, 의학계열 선호가 지속되는 한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현진 기자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6차로로 확대

출퇴근길 정체 일부 해소 기대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됨에 따라 일산대교의 출퇴근길 정체가 1일부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와 함께 추진한 하이패스 차로 확충공사와 시험 운행이 완료됨에 따라 9월 1일 0시부터 확대 차로를 운영한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8만 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 중 하나다.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

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당초 일산대교 요금소는 총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 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강성섭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다자녀 부모·청소년도 ‘기동카’ 할인받는다

오는 14일부터 할인·이용 혜택 늘어
할인 확대·한강버스 신규 권종 출시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 ‘기후동행카드’ 이용 편의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부터 받아온 큰 호응에 힘입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이용 활성화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 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출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사전에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화된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이용 요금은 약 4만~5만원 수준으로, 최대 할인폭이 약 1만 7000원까지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30일 일반권 (대중교통 전용)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 5만 5000원 ▲다자녀 할인 5만 5000원(2자녀)·4만 5000원(3자녀) ▲저소득 할인 4만 5000원이다.

특히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 91호’ 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그간의 꾸준한 요청을 반영했다.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친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 할인은 그동안 일반 성인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만 13~18세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별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받으면 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혜택과 동일하게 1인 1카드 원칙이 적용된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는 9월 18일 개통 예정인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신규 교통수단이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동수단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으로 출시되며,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푸틴, 中 텐진 도착…3일 김정은과 나란히 열병식 참석

/사진 뉴시스

▲美, 종전 안 되니 유럽 땀?…“백악관, ‘고의 방해’라고 생각”

▲EU 장관들도 미국의 팔(PA) 관리 비자 거부 만장일치로 철회 요구

▲블레어 전 英 총리, 트럼프에 “가자 주민들, 제 2 두바이 꿈꿔” 조언

▲트럼프 행정부, VOA 등 532명 감축 발표…6월 600명 해고 이은 조치

▲엘리자베스 여왕 “아는 악마와 함께 하는 것이 낫다”…브렉시트 반대



편의점업계
배우·가수 제작 참여
‘셀럽 주류’ 인기
L1



Life

GC녹십자
희귀질환 치료제
경쟁력 강화
L2



“고밀개발·인구변화 주목… ‘장기 사이클’로 기회 읽는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도시와경제

송 승 현 대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조를 보고 싶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을 단순히 ‘가격의 등락’으로만 읽지 않는다. 데이터와 현장, 그리고 장기 사이클이란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시장을 해석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의 시작은 의외로 여행이었다.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건축물, 상권, 인프라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자연경관보다는 도시의 구조와 질서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집안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는 임대사업을 했고 누나는 공인중개사로 일했다. 집이라는 공간과 시장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성장한 경험이 그의 진로를 결정짓는 밑바탕이 됐다.

첫 현장은 누나가 운영하던 중개사무소였다. 계약과 거래 과정을 배우며 시장의 기본 구조를 익혔다. 이후 시행사로 옮겨 주택 공급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발의 실제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그는 수요 예측 없이 진행되는 공급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데이터와 분석을 통한 객관적 진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이 곧 ‘도시와경제’의 출발점이 됐다.

◆ 데이터와 현장을 동시에 읽는 눈

송대표가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실거래가와 호가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신고된 실제 가격으로 시장의 객관적 기준선이 되지만 한 두 달의 시차가 발생한다. 반대로 호가는 매도자의 심리를 반영해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외부 요인에 즉각 반응한다.

그는 “실거래가로 현실을 확인하고 호가로는 시장의 선행 신호를 포착한다”면서 “두 데이터를 함께 해석해야 시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27 대출 규제 직후 서울 강남 3구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변동에 앞서 호가가 3~5% 하락했다.

송 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시장 심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가 인터뷰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지원 기자



수요예측 없는 공급구조 문제의식 느껴
데이터·현장·사이클로 부동산 분석
실거래가로 현재, 호가로 미래 포착

키워드는 저금리, 규제강화, 양극화
자극적 프레임보다 유동성 흐름 중요
정책·인구·자금 등 입체적으로 읽어야

고밀개발로 서울 중심 희소성 커질 것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재편 주목

위축을 호가가 먼저 드러낸 사례다”라며 “장기적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신호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 그는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그리고 양극화 심화가 세 가지 키워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내려가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원대에서 12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시작되자 수도

권 외곽과 지방 시장은 10~20% 조정을 받았다. 2024년 이후로는 강남·용산 같은 핵심 입지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르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8만호를 넘어서며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는 설명이다.

시장을 바라볼 때 자극적인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에는 언제나 사이클이 있으며 폭동·폭락 같은 단어에 휘둘리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서 “결국 수요·공급과 유동성 흐름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다.

◆ 규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
송대표는 6·27 대출 규제를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스트레스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차입 여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9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1억원 이상 적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기준 전월 대비 35% 줄었다. 그는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을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리한 차입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은 원하는 집을 마련하기가 한층 어려워

진 반면,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초기 재개발 구역이나 미분양 할인분양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나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같은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 그는 “수도권은 거래량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강남3구와 용산, 정비사업 단지들은 공급 희소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지방은 고용 기반이 탄탄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지방 시장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 도시와 산업, 새로운 흐름은

송대표는 최근 부동산·도시경제 트렌드의 변화로 ▲도심 고밀 개발 ▲정비사업 재편 ▲인구 구조 변화를 꼽았다.

그는 “용산정비창,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고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중심지 자산의 희소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초기 단계 구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그는 “1~2인가구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거 수요가 소형 평형과 생활 편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대표의 일상은 철저히 데이터와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는 “매일 거래량, 전세가율,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주간 단위로 주요 단지를 방문해 데이터를 현실과 비교한다”며 “데이터와 현장의 온도를 함께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을 보는 시각을 강조한다. 부동산을 단순히 시세 흐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정책·인구·산업·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송대표는 “단기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 장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큰 그림 시각이 있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유토이미지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사격, 아시아선수권 마지막 날 금 4개 추가…총 57개 메달 획득
▲안세영, 세계선수권 타이틀 방어 실패…“실수 두려워 바보처럼 했어”
/사진 뉴스스

▲이정후, 5경기 연속 안타 마감…볼티모어전 3타수 무안타
▲‘오타니 침묵’ 다저스, 애리조나에 1-6 패배…4연승 뒤 2연패

▲손흥민 떠난 토트넘, 리그 개막 3경기 만에 첫 패배
▲레알 마드리드, 개막 3연승…비니시우스 2경기 연속골